

## 대순 『전경』의 ‘공사(公事)’개념에 대한 고찰

관스황(詹石窗)\*

중국사천대학노자연구원·원장

- |                                    |                                  |
|------------------------------------|----------------------------------|
| I. 대순진리회 ‘공사(公事)’개념의 문화적 맥락        | III. 대순진리회 공사의 절차와 의식 그리고 상징적 의미 |
| II. 대순진리회 공사개념의 차별성 및 음양 도수에 관한 공사 | IV. 맺음말                          |

‘공사(公事)’는 대순진리회의 『전경(典經)』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전경』의 「공사」편은 모두 3장으로, 『전경』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행록」, 「교운」, 「교법」, 「예시」 등의 편에도 ‘공사’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사’의 함의와 역사적 유래, 형식적 특징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전경』의 사상적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공사’가 『전경』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보고, 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특별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즉, 『전경』을 자세히 정독하고 연구하였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한 사료를 조사하여 읽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여러분들의 더 나은 논의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정리하여 한 편의 글을 쓰게 되었다.

---

\* 철학박사, 현재 중국 사천대학 노자연구원 원장·교수. 『도교문화15강』, 『역학과 도교부호 연구』 등 30여 편을 집필하였고,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 I. 대순진리회 ‘공사’개념의 문화적 맥락

대순진리회의 ‘공사’개념은 하나의 특수한 문화현상으로서 고유한 내력이 있다. ‘공사’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전경』 중의 자료를 인용하여 살펴본 후 다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전경』의 ‘공사’에 관한 신이한 기록

『전경』의 「공사」 1장을 펼치면, 곧바로 ‘공사’와 관련이 있는 한 단락의 글을 볼 수 있다.

辛丑(辛丑)년 겨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아흐레 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도다. 이 동안에 뜰에 벼를 말려도 새가 날아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집 앞으로 통행하기를 어려워하였도다.<sup>1)</sup>

이 글을 읽고 나서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춥디추운 겨울에 연이어 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사를 행하면서, 창문에 종이도 바르지 않고, 화로에는 불 또한 지피지 않았으며,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울에 이 같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생활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감탄할 만한 것은, 상제께서 공사를 행하는 동안에 곡식을 말리는 촌락의 뜰에 새들이 모두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도 감히 상제의 집 문 앞을 지나다니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사를 행할 때 만들어지는 기운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1)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전경』, 간체본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p.93. 이하의 인용은 모두 본 『전경』에 근거한다.

윗글과 같은 신비하고 기이한 내용은 『전경』에 상당히 많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볼 때마다 그 내용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심지어는 너무나 훌륭하다고 감탄을 하였다. 그렇다면 ‘공사’란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대순의 공사’가 지니는 깊은 뜻을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 2. 고대 유가의 경전과 문헌 속에 기록된 ‘공사’의 기원

중국의 고대 경전과 문헌들을 살펴보면, ‘공사’라는 단어의 오랜 유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중국 상고 시기의 경전인 『시경(詩經)』의 「대아(大雅)·첨양(瞻仰)」에는 “여자는 공사가 없고, 그 누에치고 베 짜는 일을 쉰다.(婦無公事, 休其蠶織)”라는 구절이 있다. 주희는 이에 대해 “공사라는 것은, 조정의 일이다(公事, 朝廷之事也).”라고 주석을 달았다. 고대에 조정은 정치를 대표하였다. 그리고 ‘조정’의 일’은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공사’는 정치 활동의 의미를 지닌다. 고대 중국에서 상당기간 동안 정치는 남자의 일이었고, 부녀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시경』의 「대아·첨양」에서 “여자는 공사가 없다”라는 말과 연관된다. 그러나 이 말이 부녀자들이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실제로 당시 여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쳐서 베를 짜는 일이었다. 설사 왕후라 하더라도 상징적으로나마 “양잠하고 직조하는 일”을 해야 했다.

왜 왕후조차 상징적인 ‘양잠과 직조’를 해야 했던 것일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전(藉田)’이라는 제도의 기원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적전’이란 ‘공전(公田)’을 가리킨다. 고대의 법률에 의하면 천자에게는 1000묘(畝), 제후에게는 100묘의 공전이 주어졌다. 공전에서는 벼와 보리 등의 곡물을 재배하는 것 외에, 양잠과 직조를 하기

위해 뽕나무도 심었다. 공전에서 농사를 짓고 나무를 기르는 등의 작업은 일반 백성들의 힘(노동)을 빌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적전’라고 불렀다. 여기서 ‘적(藉)’은 ‘힘을 빌리다’라는 의미이다. 고대 중국에서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에는 천자는 황관을 쓰고, 주홍색 허리띠를 착용하고는 직접 가래를 쥐고 몸소 농사를 지어 시범을 보였다. 제후들 또한 정식 관모를 쓰고, 청색 허리띠를 하고는 직접 쟁기를 끌며 농사를 지었다. 황후와 부인들의 경우에는, 천자와 제후의 남성들의 활동에 상응하는 ‘누에 실로 직조’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농사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농사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 행위였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 후에, 천자와 제후들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 나면 황후와 부인들 또한 쉬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누에치고 직조하는 일을 쉰다(休其蠶織)”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면, ‘공사’라는 말이 원래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자와 제후가 친히 농사를 짓는 것은 정치활동으로서, 곧 ‘공사’이다. 그러나 황후와 부인들이 천자와 제후가 농사의 공사를 행하는 동안 양잠하고 직조하는 상징적인 활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고대에 제사와 의례는 매우 중요한 공사였다. 한대의 정씨의 전(箋), 당대의 육덕명(陸德明)이 음의를 풀이하고 공영달(孔穎達)이 소(疏)를 단 『모시주소(毛詩註疏)』의 권16 「소아(小雅)」에 있는 시의 구절에는 아래와 같은 주석이 달려있다.

몸을 청결히 하고 맛있는 음식 마련하여, 음식을 정성껏 조상께 올린다. 『전(傳)』에서, 길(吉)은 곧 선(善)이다. 견(鑊)은 깨끗하다는 뜻이다. 회(饈)는 술과 음식이다. 향(享)은 바치는 것이다. 전(箋)에서 이르기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선왕께 약(禴), 사(祠), 증(烝), 상(嘗)을 지내는 것을 말한다. 『전』에는, 봄에 지내는 것을 사, 여름의 제사는 약, 가을의 제사는 상, 겨울의 제사는 증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공사(公事)이다.2)

글의 서두에 있는 “몸을 청결히 하고 맛있는 음식 마련하여, 음식을 정성껏 조상께 올린다(吉饗爲饗, 是用孝享)”는 『시경』 중의 「소아·천보(天保)」의 구절이다. ‘견(饗)’은 ‘연(涓)’과 발음이 같고, 때를 제 거하여 없애는 것을 뜻한다. ‘견’은 고대에 ‘圭(圭)’로 읽히기도 했기 때문에, ‘길견(吉饗)’은 ‘길圭(吉圭)’라고 하였으며 이는 제사 전에 길 일을 택하여서 목욕재계 하는 것을 말한다. ‘희(饗)’은 ‘식(食)’을 변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연히 음식과 상관성을 지니게 되는데, 『모시주소』에서는 직접적으로 ‘희’가 가리키는 것이 ‘술과 음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단어의 뜻에 근거해 볼 때, ‘길견위희(吉饗爲饗)’라는 말은 술과 음식 모두를 깨끗하고 정갈하게 손질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는 의미이다. ‘시용효향(是用孝享)’은 이렇게 깨끗이 손질한 술과 음식을 천지신명에게 헌상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길견위희, 시용효향”은 종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한대의 경학자 정현(鄭玄)의 주석과 해설에 따르면, 고대의 제사는 절기에 따라 나누어 행하였는데, 각 절기마다 제식이 달랐다. 봄에 지내는 제사는 ‘사(祠)’, 여름에 지내는 제사는 ‘약(禴)’, 가을에 지내는 제사는 ‘상(嘗)’, 겨울에 지내는 제사는 ‘증(烝)’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계절에 지내는 제사든 간에, 제사는 모두 국가의 공적인 일에 속하였으며 따라서 제사를 ‘공사’라고 불렀다.

『시경』에서 뿐만 아니라, 『역경(易經)』, 『서경(書經)』, 『예경(禮經)』 등의 많은 고대 경전과 그 주석 속에도 제사를 공사로 보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필자는 검색을 통해 『사고전서』에 ‘공사’라는 단어가 1600회가 넘게 나타나고, 9000권이 넘는 문헌 자료에서 ‘공사’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중의 상당수가 종교의 제사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대순의 『전경』을 살펴보면, 구천상제 강증산과 도주 조정산 모두

2) 吉饗爲饗, 是用孝享. 『傳』, 吉, 善; 饗, 絜也; 饗, 酒食也; 享, 獻也. 箋云, 謂將祭祀也. 禴, 祠, 烝, 嘗於公先王. 『傳』, 春曰祠, 夏曰禴, 鞞曰嘗, 絜曰烝, 公事也.

『시경』과 『상서』 등 중국의 고대 경전을 읽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전경』의 「교운」 2장의 마지막 53절에서는 “도주께서 갑오년 가을에 박 한경에게 사략상하권(史略上下卷)<sup>3)</sup>과 사서삼경(四書三經)의 구판을 구하게 하시므로 이때에 통감(通鑑)·소학(小學)·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시전(詩傳)·서전(書傳)·중용(中庸)·주역(周易)의 구판을 구하여 올렸더니 이 책들은 그 후에 도장에 비치되었도다”라고 하였다. 박한경이 명을 받들어 찾아온 『통감』은 분명 송대(宋代) 사마광(司馬光)이 편찬한 『자치통감(資治通鑑)』이고, 『자치통감』에서 ‘공사’는 32회 나타난다. 고대의 다른 서적들에서도 ‘공사’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대 진덕수(眞德秀)가 편찬한 『대학연의(大學衍義)』에서는 7차례에 걸쳐 ‘공사’라는 말을 언급하였으며, 명대(明代) 하량승(夏良勝)이 편찬한 『중용연의(中庸衍義)』, 송대 채절(蔡節)이 편찬한 『논어집설』에는 ‘공사’라는 말이 3차례씩 나온다. 한대(漢代) 조씨(趙氏)가 주를 하고, 송의 손석(孫奭)이 음의(音義)하고 소(疏)를 한 『맹자주소』, 송 임지기(林之奇)의 『상서전해(尙書全解)』, 당대(唐代) 이정조(李鼎祚)의 『주역집해』에는 ‘공사’가 모두 한 차례씩 언급된다. 이러한 문헌들에서 ‘공사’는 물론 제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종교에서 지내는 제사’를 핵심적인 의미로 하는 ‘공사’의 개념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대순진리회의 『전경』에서 언급되는 ‘공사’의 개념은 상술한 경전 및 문헌들 속의 ‘공사’와 관련이 있음이 분명하다.

3) 글에서 말하는 『사략』은 아마도 『조선사략(朝鮮史略)]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 책은 『동국사략(東國史略)]으로도 불리며, 『사고전서(四庫全書)』 「사부(史部)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명나라 때 조선사람이 편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책은 내용을 보게 되면 “단군부터 고려 공양왕 왕우 시기까지 정치의 흥망성쇠를 기록하였다. 신라 밖씨 이전에 대한 약간의 기록이 있으며, 고려 왕건 이후에는 편년체로 사적을 잘 기록하고 있다(所紀其國治亂興廢之事, 始於檀君, 終於高麗恭讓王王瑤. 自新羅樸氏以前稍略, 而高麗王建以後則皆編年紀載, 事蹟頗具)” 이 책에서는 두 차례 ‘공사’를 언급하고 있다.

### 3. 도교경전에서 보이는 ‘공사’의 예

대순진리회의 『전경』에서 ‘공사’의 개념은 유가의 경전 그리고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교경전과 문헌에서도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천상제(玄天上帝)’계통의 도교 문헌에서도 대순진리회의 ‘공사’개념과 상관있는 실례들이 있다.

‘현천상제’, 즉 ‘현제(玄帝)’는 중국 도교에서 북방의 수신(水神)과 관련이 있다. 그 원류인 ‘현무(玄武)’는 본래 28수에서 북방 7수의 총칭이며, 그와 동시에 방위를 표시하는 사신(四神) 중의 하나이다. 현무의 명칭은 일찍이 선진시기에 나타났다. 그리고 진한의 교체기에 점성술이 유행하고 발전함에 따라 ‘현무’의 명성도 점점 높아갔다. 동한 이래 현무는 도교 교단에서 북쪽을 관할하는 신이 되었고, 중국 호북성(湖北省) 무당산(武當山)에서는 ‘현무’를 주신으로 숭배하는 도교의 일파가 점차 형성되었다. 피휘(避諱)의 이유로, ‘현무’는 송대에 ‘진무(眞武)’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진무대제(眞武大帝)’로 승격하게 된다. 도교가 발전함에 따라, ‘진무대제’에 관한 수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났고, 관련 경전과 문헌들도 나타났는데, 그 중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경전과 문헌으로는 『현천상제계성록(玄天上帝啓聖錄)』, 『대명현천상제서응도록(大明玄天上帝瑞應圖錄)』, 『현천상제계성령이록(玄天上帝啓聖靈異錄)』, 『무당복지총진집(武當福地總眞集)』, 『무당기승집(武當紀勝集)』 등이 있다. 이들 문헌 속에서도 ‘공사’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천상제계성록』 권1 『개환청도(凱還淸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삼청은 의지하는 것이고, 구성에서 의지를 얻는다. 다시 도법  
의 용성을 돕고, 또 사악한 마귀의 바른 본성을 회복한다. 물과  
불의 두 정령을 굴복시켜 손 안에서 장악하고, 갑과 경의 두 장  
수를 굴복시켜 법도와 질서를 지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들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만물이 발전하고 번영하게 된다. 공이 높은

모든 신성들은 아무리 기리고 숭상하여도 다하기가 어렵다. 근본으로 돌아가기를 마땅히 받아들이고, 근원으로 돌아가 위치를 복원하기를 허락한다. 만일 호칭을 내려 치하하지 않는다면, 어찌 덕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옥쇄를 찍어 하사하니, 사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천현무대장군(鎭天玄武大將軍), 삼원도총관(三元都總管), 구천유혁사(九天遊奕使), 북극좌천강(北極左天罡), 삼계대도독(三界大都督)을 특별히 모두 경배하고, 신선귀신공사(神仙鬼神公事), 판현도우승부사(判玄都佑勝府事), 의전태현원수(依前太玄元帥), 판원화천교부사(判元和遷校府事)를 책봉하여 거행한다.<sup>4)</sup>

이것은 옥황대제(玉皇大帝)가 현무진인을 책봉한 이야기의 한 단락이다. ‘삼청(三清)은 원시천존(元始天尊), 영보천존(靈寶天尊), 도덕천존(道德天尊)을 가리키며, 이들은 도교의 최고신들이다. ‘구성(九聖)’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복희, 신농, 황제, 요, 순, 대우, 문왕, 주공, 공자를 일컫는다는 설로, 진대(晉代) 갈홍(葛洪) 『포박자(抱樸子)』 「내편(內篇)·석체(釋滯)」에 “구성은 모두 『역경』을 이루며, 음과 양을 가득 채우고 역기에 충분하다(九聖共成易經, 足以彌綸陰陽)”라고 하였다. 두 번째는, 구성을 관할하는 9명의 진선(眞仙)을 말하는데, 천봉성(天蓬星), 천임성(天任星), 천충성(天沖星), 천보성(天輔星), 천영성(天英星), 천예성(天芮星), 천주성(天柱星), 천심성(天心星), 천금성(天禽星)이 이에 속한다. 도교에서는 각각의 선성들이 구성을 관장한다고 생각하여 구성이라 불렀다. 윗글에서 말하는 ‘구성’은 후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체 글의 의미를 간략히 말해보자면, “현무는 삼청천존(三清天尊)에 의지하고, 구성진인(九星眞人)에 의지한다. 현무는 다시 도법의 부흥을 도우며, 동시에 사악한 요괴와 마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다. 현무는 물의 정령과 불의 정령을 굴복시켰으며, 스스

4) 『道藏』, 第19册, 文物出版社, 天津古籍出版社, 上海書店 影印版, 1988, p.576, “三清是賴, 九聖得依. 再扶道法之隆, 又復邪魔之正. 降水火二精於掌握, 攝甲庚兩將於紀綱. 因茲神化, 萬匯鹹榮. 功高眾聖, 難虛褒崇. 當容返本還源, 理許歸根復位. 若不徽稱, 焉可顯德. 璽書錫降, 厥勿謙辭. 可特拜鎭天玄武大將軍, 三元都總管, 九天遊奕使, 北極左天罡, 三界大都督, 神仙鬼神公事, 判玄都祐勝府事, 依前太玄元帥, 判元和遷校府事, 冊到奉行.”



로 제어하고 장악하여, 갑(甲)과 경(庚)이 무질서한 장수들을 체포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우주와 천지의 운행의 규율을 따르게 만들었다. 여기에서 정기가 고양되고, 천하 만물이 번영하고 발전하며 융성하였다. 현무의 공로는 다른 여러 신성들 보다 높으며, 그 공로가 너무 크고 높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며 공로를 치하하기 어렵지만, 현무가 근원을 돌아보고, 태초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허가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이렇게 칙명을 내려 호칭을 하사하지 않는다면, 어찌 현무가 하늘과 땅의 질서를 수호한 공덕을 치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짐은 이 책을 만들어 옥새를 찍어 하사하니, 그대는 겸손하게 사절하지 않기 바란다. 지금 짐은 다시금 책봉하여 하늘의 명을 받들음을 선포한다.”라는 내용이다.

위의 책봉 조서에서 나타난 ‘신선귀신공사(神仙鬼神公事)’라는 말은 상당히 주의해서 볼만 하다. ‘신선귀신공사’라는 말은 ‘신선과 귀신의 일을 총 관리 하는 총 간사’의 의미로 쓰였는데 이는 국가의 최고 장관직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공사’는 공적인 책임을 지고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선귀신공사’의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으며, 사악한 것을 제거하고 바른 것을 받드는 임무를 위하여 여러 신선과 군사들을 파견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필자는 『현천상제계성록』을 여러 차례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공사’의 개념이 다수 출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천상제계성록』 권1에는 위에서 인용한 문단 외에, 또 다른 ‘공사’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 「무당발원(武當發願)」에는 “모두 사람을 판단하여 선악의 공사를 묻는다(都判人間善惡公事)”라고 하였으며, 권7 「고성강범(高聖降凡)」에는 “천하의 선악 공사를 관장하다(管掌天下善惡公事)”, 권8 「양공관잠(梁公冠簪)」에는 “반 달에 한정하여, 공사를 돌보아야 한다(限半月, 要見公事)”라는 말이 있다. 또한 『무당복지총진집(武當福地總眞集)』, 『무당기승집(武當紀勝集)』 등 ‘현무’에 대한 신앙을 기록한 경전과 서적에

서 모두 ‘공사’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예로부터 ‘공사’는 도교의 현무 신앙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전경』을 보아도 ‘현무’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교운」 1장 66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상제께서 기유(己酉)년 정월 一일 사시(巳時)에 현무경(玄武經) 세 별을 종필하고 한 별은 친히 품속에 지니고 한 별은 도창현(道昌峴)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한 별은 경석의 집에 맡기셨도다.”<sup>5)</sup> 이 글 뒤에 20페이지가 넘는 부도들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7페이지는 ‘현무’ 혹은 ‘현무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강성상제께서 전수한 도법이 분명 중국 전통 도교의 현무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공사’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교의 현무 신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 II. 대순진리회 공사개념의 차별성 및 음양 도수에 관한 공사

필자는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공사개념을 유교와 도교의 경전과 관련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대순진리회의 공사개념이 중국 고대의 공사개념을 단순히 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 1. 대순진리회 공사개념의 차별성

실제로 사상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강성상제와 도주 조정산께서

---

5) 『전경』, p.172.

행한 공사는 모두 그들 고유의 새로운 점이 있다. 「공사」 1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 四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얻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sup>6)</sup>

이 글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강성상제께서 행한 ‘공사’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행한 ‘공사’의 특징, 방향,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전경』에 의하면, 이른바 ‘삼계(三界)’란, ‘천, 지, 인’ 삼계를 말하며, 이 중 지계는 명부를 가리킨다. 천지의 공사를 행하는 것은 자연, 인간, 명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삼계의 공사는 결코 고립적이지 않고, 서로 관련이 있다. 공사를 행한다면 각종의 원한을 해결하는 것을 가리키며, 삼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비록 역사적인 전통이 있지만,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공사를 행하는데 있어서의 관념과 실천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강성상제께서는 중도인 김형렬에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이 글은 강성상제께서 공사를 행하는데 있어 변화와 혁신 정신을

6) 같은 책, p.94.

강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것인가? 이는 ‘선천의 도수’를 바로잡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다”는 우주와 천지가 처음 시작되자마자 시공의 도수가 부정확하게 되어서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인간이 세상에 출현한 이후, 욕망이 끊임없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사회의 모순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선천 도수의 혼란이 야기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 조화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개벽’이란 ‘묵은 하늘’을 혁신하고 인간 생활에서 선천의 도수가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 천지의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액운을 물리치기 위하여 ‘새로운 하늘’을 제시하여 지상선경을 건립하는 것이다.<sup>7)</sup>

## 2. ‘선천(先天)’과 ‘후천(後天)’개념의 고찰

‘선천도수(先天度數)’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설명하려면 우선 ‘선천’과 ‘후천’이 내포한 의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논의해 봐야 한다. ‘선천’과 ‘후천’은 중국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주역』의 해석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역』의 「건괘(乾卦)·문언(文言)」에서,

하늘보다 먼저 있으나 하늘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하늘보다 나중에 있으나 하늘의 때를 받든다. 하늘은 또한 어긋나지 아니 하니, 하물며 인간이 어찌 그러하겠는가? 하물며 어찌 귀신이 그러하겠는가?<sup>8)</sup>

7) 필자는 『전경』의 많은 부분에서 ‘선천’과 ‘후천’의 개념을 사용하였으나, 그 함의는 『주역』이 말하는 ‘선천’과 ‘후천’과는 다르다는 데에 주의하였다. 특정한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할 때에 비로소 그 뜻이 분명해 질 것이다.

8) 先天而天弗違，後天而奉天時。天且弗違，而況於人乎？況於鬼神乎？

이에 대해, 당대(唐代)의 경학가 공영달(孔穎達)은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선천이천불위(先天而天弗違)’라는 말은, 만일 하늘의 때보다 앞서 일을 행하면, 하늘은 즉 뒤에 있고, 하늘이 대인에 합치되는 것이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다. ‘후천이봉천시(後天而奉天時)’라는 말은, 하늘의 때보다 이후에 일을 행하면, 능히 하늘을 받들고 따를 수 있으니, 대인이 하늘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천차불위, 이황어인호, 황어귀신호(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라는 말에 대해 공자는, 이로써 하늘은 또한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대인의 덕을 밝히니, 높고 먼 것은 오히려 어긋나지 않는데, 어찌 작고 가까운 것이 위배됨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공영달의 설명을 참조하면, ‘선천’이 가리키는 것은 “하늘의 때보다 앞서서(在天時之先)”이고, ‘대인(大人)’의 행위가 자연적 시간의 어떤 한 시점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그 시점이 여름이면, ‘대인’은 도리어 시기를 앞당겨서 봄에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영달은 ‘천’의 규율과 법도가 ‘대인’의 생각과 합치하여 둘이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때에 ‘대인’이 주도하며, ‘하늘’은 이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후천’이 가리키는 것은 “하늘의 때 보다 나중(天時之後)에 일을 행함”이고, 또한 ‘대인’이 자연적 시간의 어떤 한 시점 이후에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시점이 봄이면, ‘대인’은 도리어 여름에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때 양자는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공영달은 이에 대해 ‘대인’의 사유방식과 ‘천’의 규율과 법도가 합치된 것이며, 이때 ‘천’이 주도자이고 ‘대인’은 이에 순응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전개의 핵심은 ‘천’은 법도가 있으며, ‘대인’은 하늘의 시기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든, 나중에 일을 행하든 상관없이, 모두 천체의 운행 궤도와 합치되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하늘’보다 앞서

9) [魏]王弼註, [唐]陸德明 音義, 孔穎達 疏, 『周易註疏』卷1, 文淵閣 『四庫全書』本, “先天而天弗違者, 若在天時之先行事, 天迺在後, 不違是天部大人也. ‘後天而奉天時’者, 若在天時之後行事, 能奉順上天, 是大人部天也.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者, 夫子以天且弗違, 遂明大人之德, 言尊而遠者尚不違, 況小而近者, 可有違乎?”

서 일을 행함은 ‘대인’이 예견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하늘의 시기 이후에 일을 행함은 ‘대인’이 하늘의 도를 숭상하고 따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 3. ‘선천팔괘(先天八卦)’와 ‘후천팔괘(後天八卦)’

‘선천’과 ‘후천’은 ‘역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역』의 「설괘전(說卦傳)」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과 땅의 위치를 정하고, 산과 연못은 기를 통하며, 뇌우와 바람은 서로 가까이 모이며, 물과 불은 서로 쓰러뜨리지 않으니, 팔괘가 서로 얽혀있다.<sup>10)</sup>

위 문장의 의미는 이러하다. “하늘과 땅이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음으로써 위치가 확정되고, 산과 연못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서로 기를 통한다. 우뢰와 바람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마구 휘몰아치고, 서로 호응하고 화합한다. 물과 불은 비록 성질은 다르지만, 억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서로 돕는다. 팔괘는 이렇게 서로 얽혀서 통하고 서로 응한다.”

팔괘의 배상을 보면, 천지는 즉 건곤(乾坤)이고, 산택(山澤)은 간태(艮兌), 뇌풍(雷風)은 진손(震巽), 수화(水火)는 감리(坎離)로, 이들은 각각 방향을 가리키며, 엇갈려 부조화한 듯 보이지만 잘 정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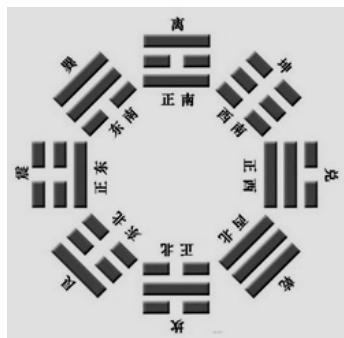
10)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

송대(宋代) 경학가 소옹(邵雍)은 「설괘(說卦)」가 말하는 것이 복희씨가 창조한 ‘선천팔괘방위(先天八卦方位)’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에 근거하여, 복희씨의 ‘선천팔괘’가 나타내는 자연적 기상현상을 추론하여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그 도안의 명칭을 ‘복희선천팔괘도(伏羲先天八卦圖)’라 하였다. ‘복희선천팔괘도’에서는 건곤을 남북으로 정하고, 감리(坎離)를 동서에 연결해두고, 태(兌)는 동남에, 손(巽)은 서남에, 진(震)은 동북에, 간(艮)은 서북에 두었다.<sup>11)</sup>

위치를 이렇게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천지와 우주 공간을 360도로 나누어, 매 괘의 간격을 45도로 두고 순서대로 배치하였다. 동서남북을 나눈 것은 ‘선천팔괘’가 상징하는 하늘과 땅, 자연의 도수를 말한다. ‘선천팔괘’는 또한 시간을 상징하는 부호를 뜻하는데, 그 이유는 고대에는 동서남북의 방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가 서로 상응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천팔괘’ 역시 시간의 자연적 흐름과 절기의 자연적 변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였다.

‘선천팔괘’가 서로 호응하기 때문에 ‘후천팔괘’가 있다.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후천팔괘’의 방위는 주나라 문왕이 고안한 것으로, ‘문왕팔괘방위(文王八卦方位)’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왕팔괘방위’는 근거 없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희씨의 팔괘에서 음양을 서로 통하게 하여 만든 것으로, 자연계의 변화원리를 실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동서남북의 ‘사정위(四正位)’의 변화와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의 ‘사우위(四隅位)’의 변화를 말한다.



11) 고대 중국 사람들이 창제한 팔괘의 방위와 서양 사람들이 발명한 지도의 방위는 서로 반대된다. 서양의 지도가 표시하는 ‘동’은 팔괘의 방위에서는 바로 ‘서’이고, 서양 지도상의 ‘서’는 팔괘 방위에서는 오히려 ‘동’이며, 다른 방위도 마찬가지이다.

### ‘사정위’<sup>12)</sup>의 변화

남쪽에 있는 선천의 건괘(乾卦) 중효(中爻)를 그 아래에 있는 북쪽의 선천 곤괘(坤卦) 중효와 연결하면, 후천의 감괘(坎卦)가 된다. 북쪽의 선천의 곤괘 중효를 그 위에 있는 선천 건괘 중효와 연결하면, 후천의 리괘(離卦)가 된다. 동쪽의 선천 리괘 초효(初爻)를 서쪽의 선천 감괘의 초효와 연결하면, 후천의 태괘(兌卦)가 된다. 서쪽의 선천 감괘 초효를 선천 리괘의 초효와 연결하면, 후천의 진괘(震卦)가 된다. 이로써 선천의 건곤은 후천의 리감로 변하고, 선천의 리감는 후천의 진태로 변한다.

### ‘사우위’<sup>13)</sup>의 변화

동남쪽 선천의 태괘 초효와 이효(二爻)를 서북쪽 선천 간괘(艮卦)의 초효와 이효에 연결하면, 후천의 서북쪽 건괘로 변한다. 서북쪽 선천 간괘의 초효와 상효(上爻)를 동남쪽 선천 태괘의 초효, 상효와 연결하면, 후천의 손괘(巽卦)가 된다. 동북쪽의 선천 진괘 중효(中爻)와 상효를 서남쪽 선천 손괘의 중효, 상효와 연결하면, 후천의 곤괘가 된다. 서남쪽 선천의 손괘 초효, 상효와 동남쪽 선천의 진괘를 연결하면, 후천의 간괘가 된다.

위의 설명을 통해서, 선천팔괘는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배치하고 이러한 질서 및 태초의 자연 도수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천팔괘는 만물에 감응하고 통하며, 흘러가고 변화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된 『역경』의 패상 ‘선천학(先天學)’과 ‘후천학(後天學)’ 이론은 중국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순진리회의 『전경』 중에 강성상제께서 공사를 행한 기록들에서도 『역경』의 ‘선천학’과 ‘후천학’ 패상도수(卦象度數)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 2장 16절에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12) ‘사정위’이란 동서남북이다.

13) ‘사우위’이란 동남, 동북, 서남, 서북이다.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시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맡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sup>14)</sup>

‘정음정양(正陰正陽)’은 복희씨의 음양을 말한다. 즉, 태초의 선천팔괘 방위가 제시하는 음양의 도수이다. 그리고 “그 기운을 잘 받는다.”는 것은, 태초의 선천팔괘 도수에 따라 자신의 생명 리듬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천인합일의 자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 4. 선후천괘의 위치와 하도 및 낙서

역학의 전통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복희씨의 ‘선천팔괘방위’와 천지 자연 수리의 이치를 체현한 ‘하도’는 기본 정신에서 합치된다. ‘문왕도수’는 주문왕의 ‘후천팔괘방위’가 나타내는 변화도수인데, 이는 ‘낙서’의 변통원리와 서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전경』에서도 공사의 음양도수 문제에 대해 논할 때에, 명확하게 든 혹은 모호하게 든 하도와 낙서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공사」 1장 30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상제께서 「하도낙서 지인지감 김 형렬, 출장입상 김 광찬, 기연미연 최 내경, 평생불변 안 내성, 만사불성 김 송환(河圖洛書 知人之鑑金亨烈 出將入相金光贊 既然未然崔乃敬 平生不變安乃成 萬事不成金松煥)」이라 쓰셔서 불사르시고 날이 저물었을 때 쌀 열 말씩을 종도들에게 나누어서 덕찬과 형렬의 집에 보내셨도다.<sup>15)</sup>

위 글에는 ‘하도, 낙서’의 명칭이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다섯 명의 종도와 하도, 낙서의 방위를 연관시켜 놓았는데, 이는 목, 화, 토, 금,

14) 『전경』, p.116.

15) 같은 책, p.104.

수의 ‘오행’을 나타낸다. 글의 마지막에 쓰여 있는 ‘쌀 열 말(十斗米)’은 하도와 낙서에서 말한 가장 큰 천지자연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도, 낙서’라는 말은, 일찍이 『상서』 등 중국 선진시기의 고대 문헌에서 나타난다. 『주역』의 「계사상(繫辭上)」에서는 “황하에서 도(圖)가 나왔고, 낙수에서 서(書)가 나왔으니, 성인이 즉 이를 본받았다(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라고 하였다. 즉, 황하에 용마가 도(圖)를 등에 지고 나타났고, 낙수에 신구(神龜)가 서(書)를 싣고 솟아올랐으니, 성인이 하도와 낙서의 법상을 참고하여 팔괘를 그려냈다는 의미이다. 한 대(漢代) 경학자 정강성(鄭康成)은 『춘추위(春秋緯)』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황하는 건과 통하여 천포가 나오고, 낙수가 곤에 흘러서 지부가 나왔다. 황하에서는 용이 그림으로 표현하였고, 낙수에서는 거북이가 글로써 마음을 움직였다. 『하도』는 9편이 있고, 『낙서』는 6편이 있으니, 이로써 성현을 숭상함이 있다.<sup>16)</sup>

이 글의 의미는 이러하다. “황하가 하늘에 닿고, 용마가 나타낸 그림으로 건괘의 형상을 그려내니, 그 괘의 형상이 마치 꽃봉오리가 활짝 꽃필 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낙수가 흘러 넘쳐 대지에 미치니, 거북이 껍질에 나타난 형상을 본 떠 곤괘 부호를 만들었다. 그 부호는 거북 껍질의 무늬와 동일하게 배치되었다. 그 후, 용마의 그림이 성행하였고, 낙수의 거북이 형상이 널리 공감을 얻었으며, 성인의 생각과 추론으로 신비하고 오묘한 문화의 결정체를 얻어 내었다. 이것이 바로 『하도』와 『낙서』이다. 옛 사람들은 『하도』는 모두 아홉 편, 『낙서』는 모두 여섯 편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이 전해지는 것은 성현의 과업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정강성이 인용하고 해석한 것을 보면, 하도와 낙서는 한대에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후 상당기간 동안, 유학자들은 하도와

16) [宋]王應麟 編, 『周易鄭康成註』, 『四庫全書』本, “河以通乾出天苞, 洛以流坤吐地符. 河龍圖髮, 洛龜書感. 『河圖』有九篇, 『洛書』有六篇, 有以尙賢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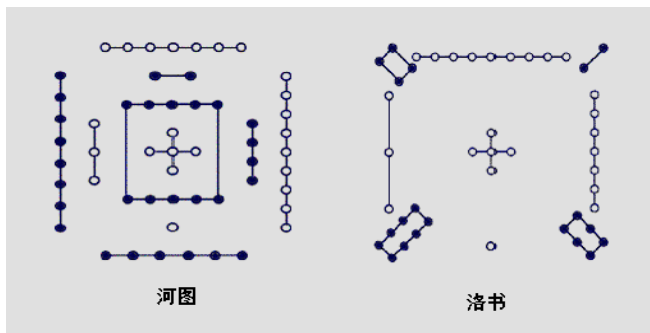
낙서의 의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북송 시기에 이르러, 도사 진단이 도교의 은자로부터 하도와 낙서를 비밀리에 전해 받아서, 숫자의 이치를 추론하여 하도와 낙서의 형상을 밝혀내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암벽에 새겨놓았다. 그 후, 유교와 도교의 인사들이 모두 하도와 낙서를 전수받아서 명맥이 단절되지 않아, 하락도서에 관한 학문이 널리 전해지고 연구되었다.

역사적으로 하도, 낙서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하도의 모양은 『주역』 「계사상」에서 말하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서로 더하여 ‘55’를 만드는 것이고, 이는 천지자연의 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낙서의 형상은 ‘1’에서 ‘9’까지를 서로 더한 수로, 즉 ‘45’이다.

송대 리학가(理學家) 주희가 편찬한 『주역본의(周易本義)』 권1에 있는 9종의 그림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도이고, 두 번째는 낙서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주역본의』의 이론을 채택하여 논지를 전개하기로 한다.

주희는 이 두 도(圖)가 북송 소옹에게서 전해진 것이라 하였다. 즉, 소옹에서 거슬러 올라가보면 진단에 이르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보면 한대의 공안국(孔安國)이 만든 하도, 낙서의 숫자 배열에 이르게 된다. 하도와 낙서는 어떤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주희는 『역학계몽(易學啓蒙)』 권1에서 하도와 낙서의 의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도에 대해서 주희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하도의 위치는 1과 6은 중을 함께 하여 북쪽에 있고, 2와 7이 벗하여 남쪽에 있고, 3과 8이 도를 함께하여 동쪽에 있고, 4와 9가 어울려 서쪽에 있고, 5와 10이 서로 지켜서 중앙에 있다. 대개 수라는 것은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기이고 하나는 우로서, 양자가 오행을 이루는 것일 따름이다. 이른바 하늘이라는 것은 양이 가볍고 맑아서 위에 위치한 것이다. 이른바 땅이라는 것은 음이 무겁고 탁하여 아래에 위치한 것이다. 양수는 기수(奇數)이고, 1, 3, 5, 7, 9는 모두 하늘에 속하며, 하늘의 수는 다섯이다. 음수는 우수(偶數)이고, 2, 4, 6, 8, 10이 모두 땅에 속하며, 땅의 수는 다섯이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는 서로 비슷하고 서로 구함이 있으니, 이른바 다섯 자리가 서로 얻음이 있다는 것은 이를 일컫는 말이다.

하늘이 1로써 물을 만들면, 땅은 6으로써 그것을 완성한다. 땅이 2로써 불을 만들면, 하늘은 7로써 그것을 완성한다. 하늘이 3으로써 나무를 만들면, 땅은 8로써 그것을 완성한다. 땅이 4로써 금을 만들면, 하늘은 9로써 그것을 완성한다. 하늘이 5로써 흙을 만들면, 땅은 10으로써 그것을 완성한다. 이것은 또한 이른바 각각의 합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 개의 기수를 더하면 25가 되고, 다섯 개의 우수를 더하면 30이 된다. 이 두 수를 합하면, 55가 된다. 이것은 하도의 완전한 수이며, 모두 공자의 뜻이고, 여러 유가들의 학설이다.<sup>17)</sup>

이 두 문단에서, 앞 문단은 ‘하도’의 수가 의미하는 자연의 법칙을 해석하였고, 뒷 문단은 ‘하도’의 수와 ‘오행’의 관계를 풀이하였다.

첫 번째 문단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1’과 ‘6’은 북쪽에, ‘2’와 ‘7’은 남쪽에, ‘3’과 ‘8’은 동쪽에, ‘4’와 ‘9’는 서쪽에 배치하고, ‘5’와 ‘10’은 중앙에 배치한다. 이 열 개의 숫자는 하나는 양이고 하나

17) [宋]胡方平, 『易學啓蒙通釋』 卷上, 『四庫全書』 本, “河圖之位, 一與六共宗而居乎北, 二與七爲朋而居乎南, 三與八同道而居乎東, 四與九爲友而居乎西, 五與十相守而居乎中. 蓋其所以爲數者, 不過一陰一陽, 一奇一偶, 以兩其五行而已. 所謂天者, 陽之輕清而位乎上者也; 所謂地者, 陰之重濁而位乎下者也. 陽數奇, 故一, 三, 五, 七, 九皆屬乎天, 所謂天數五也. 陰數偶, 故二, 四, 六, 八, 十皆屬乎地, 所謂地數五也. 天數, 地數, 各以類而相求, 所謂五位之相得者然也. 天以一生水, 而地以六成之; 地以二生火, 而天以七成之; 天以三生木, 而地以八成之; 地以四生金, 而天以九成之; 天以五生土, 而地以十成之. 此又其所謂各有合焉者也. 積五奇而爲二十五, 積五偶而爲三十. 合是二者, 而爲五十有五. 此河圖之全數, 皆夫子之意, 而諸儒之說也.”

는 음으로, 서로 짝을 이루어 대응을 이루기 때문에 오행의 수의 두 배가 된다.

1, 3, 5, 7, 9는 ‘하늘의 수(天數)’이고, 2, 4, 6, 8, 10은 ‘땅의 수(地數)’이다. 양은 위에서 가볍고 맑은 것이고, 음은 아래에서 무겁고 탁한 것이다. 다섯 방위는 모두 음양을 갖추고 있어서, 이로써 음양의 상대적인 형태와 기세를 구성한다.

두 번째 문단을 이해하는 데에 관건은 바로 ‘생성(生成)’이라는 두 글자를 잘 파악하는 데 있다. 주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도’의 수는 바로 ‘오행’ 생성의 근본이다. ‘水’는 하늘의 1로부터 생성되어, 땅의 6으로 인해 완성된다. ‘火’는 땅의 2로부터 생성되어, 하늘의 7로 인해 완성된다. ‘木’은 하늘의 3으로부터 생성되어, 땅의 8로 인해 완성된다. ‘金’은 하늘의 4로부터 생성되어, 땅의 9로 인해 완성된다. ‘土’는 하늘의 5로부터 생성되어, 땅의 10으로 인해 완성된다. 이처럼 오행(金木水火土)에 대응하는 수는 모두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으로, 둘둘 짝 짝을 이룬다. 1, 3, 5, 7, 9의 기수를 합하면 25이고, 2, 4, 6, 8, 10의 우수를 합하면 30이다. 사각형 속의 기수와 우수를 서로 더하면 55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도’의 전체 수이다. 공부자가 말한 하늘과 땅의 수는 바로 55로, 즉 하도의 수였다. 역대의 유가들은 바로 「계사」의 의미에 근거하여 하도를 해석하였던 것이다.

‘낙서’에 대해서 주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관자명은 9는 앞쪽에 있고 1은 뒤쪽에 있으며, 3은 왼쪽에, 7은 오른쪽에 있고, 4는 앞쪽 왼편에 있고, 2는 앞쪽 오른편에 있다고 하였으며, 8은 뒤쪽 왼편에 있고, 6은 뒤쪽 오른편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문왕이 오래 근심하여 살핀 것이다. 문왕이 낙서의 8가지 상을 살피고 가지고 놀기도 하며, 셈하는 것을 반복하여, 건곤기우(乾坤奇偶)의 9가지 형상을 취했다. 이로써 후천의 『주역』을 만들었으니, 경괘를 상하로 나누어, 그린 것은 9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한다. 소옹의 『후천연경도(後天演經圖)』에는, 진태(震兌)를 가로에 두고 육괘(六卦)를 세로에 둔 것이 옳다고 말한다.<sup>18)</sup>

글 속에서 말하는 ‘관자명(關子明)’은 이름은 량(郎)이고, 위대 저명한 역학의 대학자로, 위진시기 이래로 경학가들은 통상적으로 그의 학설을 근본으로 삼았다. 위 문단에서 주희는 관자명이 ‘낙서’의 수를 배열한 위치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문왕의 후천팔괘방위’와 ‘낙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외에도 『주역』 전체에서 나타난 수의 이치 속에서 ‘낙서’의 의미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 중에 “9는 앞쪽에 있고 1은 뒤쪽에 있으며, 3은 왼쪽에, 7은 오른쪽에 있다. 4는 앞쪽 왼편에 있고, 2는 앞쪽 오른편에 있다. 8은 뒤쪽 왼편에 있고, 6은 뒤쪽 오른편에 있다(九前一后, 三左七右, 四前左, 二前右, 八后左, 六后右)”라는 구절은 관자명이 ‘낙서’의 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정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다.

주희는 『주역본의』 권1에서 더욱 간결하고 정련된 문장으로 이를 요약하였다.

낙서는 대체로 거북이 형상에서 취하였다. 그 수는 9를 이고 1을 밟고, 3은 왼쪽, 7은 오른쪽에, 2와 4는 어깨에, 6과 8은 발에 두었다.<sup>18)</sup>

의미는 이러하다. “‘낙서’는 귀갑(龜甲)의 형상을 취하여 만든 것이다. ‘낙서’의 숫자배열은 사람이 모자를 쓴 모습과 같다. 머리에 ‘9’를 쓰고, 다리로 ‘1’을 밟고, 왼쪽에는 ‘3’, 오른쪽에는 ‘7’, 그리고 ‘2’와 ‘4’는 양 팔 옆에 위치하며, ‘6’과 ‘8’은 양 발 옆에 위치한다.”

이 이론을 실제 ‘낙서’의 도상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낙서’의 배열 형태와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중간에 숫자 ‘5’를 넣으면, 한 개의 ‘9궁(宮)’이 완성된다. ‘9궁’의 숫자를 가로, 세로로 대미시

18) [宋] 稅與權, 『易學啓蒙小傳』, 『四庫全書』本, “關子明云, 九前一後, 三左七右, 四前左, 二前右, 八後左, 六後右. 意謂文王當中古憂患之餘, 諦玩洛書之八象, 反復參稽, 取乾坤奇偶之九畫, 而作後天之『周易』, 故經卦分上下, 而爲畫者亦自九始. 今見於邵子『後天演經圖』, 謂震兌橫而六卦縱者是也.”

19) 洛書蓋取龜象, 故其數, 戴九履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六八爲足.

켜보면, 오른쪽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

이 표를 통해 낙서의 숫자 배열이 가로든 세로든, 혹은 직선이든 사선이든 간에, 그 숫자를 더하면 1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9	2
3	5	7
8	1	6

흥미로운 것은, 대순진리회의 『전경』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숫자 배열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사」 3장 28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상제께서 네 종도를 약방 네 구석에 각각 앉히고 자신은 방 가운데 서시고 「二七六 九五一 四三八」을 한 번 외우시고 종도 세 사람으로 하여금 종이를 종이돈과 같이 자르게 하고 그것을 베틀집 속에 채워 넣고 남은 한 사람을 시켜 한 쪽씩 꼬집어낼 때 ‘등우(鄧禹)’를 부르고 꼬집어낸 종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고….<sup>20)</sup>

글 속의 “二七六, 九五一, 四三八”의 순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것인데, 바로 전에 배열된 하도의 모양과 서로 비교하여 보면, 강성상제께서 염송한 숫자가 바로 ‘낙서’ 9궁의 수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강성상제께서 류찬명에게 칼을 쥐라고 하고, 형렬에게 부채를 쥐라고 하고, 김자현에게 목을 취하라고 하고, 한공숙에게 붓을 취하라고 한 후, 각각 약방의 한 쪽을 지키도록 하고 자신은 정 중앙에 섰다. 이것은 분명 ‘낙서’의 법상에 근거한 방위 배치인 것이다.

## 5. 하도, 낙서의 체용허실(體用虛實)과 태극도(太極圖)

하늘과 땅, 자연의 도수를 형상화한 부호로서, ‘하도’와 ‘낙서’는 선민의 ‘체용(體用)’과 ‘허실(虛實)’의 인지적 방법에 근거하였다. 예를 들어, ‘하도’는 천지자연 도수의 ‘체’를 보여주고, ‘낙서’는 천지자연 도

20) 『전경』, p.136.

수의 ‘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체용’의 관계는 동시에 ‘허실’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에 대해 주희는 『역학계몽』에서 아래와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하도는 그 중양을 비웠고, 낙서는 그 실수를 총괄하였다.<sup>21)</sup>

윗 문장의 의미는 이러하다. “‘하도’의 숫자를 배열해보면, 중간에 비록 ‘5’와 ‘10’을 놓아두었지만, 도리어 비어있고 겹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낙서’의 수는 ‘1’에서 ‘9’까지 숫자의 실제적 의미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하도’는 왜 ‘5’와 ‘10’을 가운데에 놓았는가? 그리고 다른 수들이 지니는 부호로서의 의미는 또한 어떠한가? 주희는 『역학계몽』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도의 5와 10은 비어 있고 이는 곧 태극이다. 기수 20과 우수 20은 양의이다. 1, 2, 3, 4로 하늘을 삼고, 6, 7, 8, 9를 사상으로 삼는다. 사방의 합을 나누어, 이로서 건, 곤, 감, 리를 만들었다. 사방의 빈 곳을 채워서, 태, 진, 손, 간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팔괘이다.<sup>22)</sup>

주희의 관점에 의하면, 하도에는 ‘5’와 ‘10’이 비어있음은 가운데가 ‘태극(太極)’이기 때문인데, 이는 중화(中和)의 도를 대표한다. 비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태극’에 대한 숭배를 나타낸다. ‘5’와 ‘10’을 빼면 ‘40’이 남는데, 그 중에 기수를 더하면 ‘20’이 되고, 우수를 더하면 ‘20’이 되어, 이들의 합 또한 음양의 양의를 나타낸다. ‘1, 2, 3, 4’가 하늘의 사방을 나타내고, 이에 대응하는 ‘6, 7, 8, 9’는 『주역』이 말하는 ‘사상(四象)’으로,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을 말한다. 그 중에

21) [宋]胡方平, 『易學啓蒙通釋』 卷上, 『四庫全書』 本, “河圖者虛其中, 則洛書者總其實也.”

22) 같은 책, “河圖之虛五與十者, 太極也. 奇數二十, 偶數二十者, 兩儀也. 以一, 二, 三, 四爲天, 六, 七, 八, 九者, 四象也. 析四方之合, 以爲乾, 坤, 離, 坎; 補四隅之空, 以爲兌, 震, 巽, 艮者, 八卦也.”



‘6’은 태음이고 노음(老陰)이다. ‘9’는 태양이며 노양(老陽)이다. 또한 ‘7’은 소양(少陽), ‘8’은 소음(少陰)이다. ‘석사방지합(析四方之合)’의 ‘석(析)’자는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석사방지합’은 ‘하도’의 동서 남북 네 방향의 수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남쪽의 ‘2, 7’을 분리하여, ‘7’을 남쪽에 두는데 이는 건괘를 나타낸다. ‘2’로써 동남쪽 구석의 빈 공간을 보충하는데 이는 태괘를 나타낸다. 동쪽의 ‘3, 8’을 분리하여, ‘8’을 동쪽에 두고, 리괘를 나타낸다. ‘3’은 동북쪽의 빈 공간을 보충하는데 이는 진괘를 나타낸다. 서쪽의 ‘4, 9’를 분리하여, ‘9’를 서쪽에 두는데, 이는 감괘를 나타낸다. ‘4’는 서남쪽 구석의 빈 공간을 보충하는데 이는 손괘를 나타낸다. 북쪽의 ‘1, 6’을 분리하여, ‘6’을 북쪽에 두는데 이는 곤괘를 나타낸다. ‘1’로 서북쪽 구석의 빈 공간을 보충하는데 이는 간괘를 나타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복희씨의 ‘선천팔괘방위’의 창조 배경이 바로 ‘하도’의 수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선천팔괘방위’는 ‘하도’의 수를 전환한 것으로 양자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도’와 ‘선천팔괘방위’의 근본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5’와 ‘10’ 이 두 중앙의 숫자이다. 중앙의 ‘5’와 ‘10’은 ‘태극’을 대표하며, 천지도수의 중심축이 있는 곳이다. 강성상제께서는 이러한 배치의 오묘함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경』에서 ‘태극’에 대한 언급은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사」 3장 12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이 공사를 끝내시고 상제께서 양지에 무수히 태극을 그리고 글자를 쓰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덕겸에게 동도지(東桃枝)를 꺾어오라 하시며 태극을 세되 열 번째마다 동도지를 물고 세도록 이르시니 마흔아홉 개가 되니라. 상제께서 「맞았다. 만일 잘못 세었으면 큰일이 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동도지를 들고 큰 소리를 지르신 뒤에 그 문축(文軸)을 약방에서 불사르시니라.<sup>23)</sup>

23) 『전경』, p.94.

이 이야기가 신기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 강성상제께서 공사를 행한 후 그린 ‘태극’은 ‘무수(無數)’하였다. 그런데 종도 덕겸이 진지하게 그것을 세어보니, 정확하게도 ‘49’였는데, 이 수는 『주역』의 ‘대연(大衍)’에서 사용한 수와 같다. 『주역』의 「계사상」에서 “대연의 수는 50이고, 그것은 49를 사용한다(大衍之數五十, 其用四十有九)”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강성상제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49개의 태극도(太極圖)를 그린 것이다. 이는 즉, 천지의 도수를 바로잡기 위하여, 반드시 선천자연의 실체를 밝혀야 하며, 그런 후에 비로소 후천에 쓰임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선천의 체는 발전하여 후천의 용에 이른다. 또한 선천의 체는 ‘하도’의 가운데 빈 곳이자 ‘태극’의 근본을 깨닫는 기초 위에서, ‘낙서’ 속 9개 숫자의 실제적인 효용을 이루어낸다. 주희의 『역학계몽』에서는 이 문제를 치밀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낙서의 실체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오행(五行), 두 번째는 오사(五事), 세 번째는 팔정(八政), 네 번째는 오기(五紀), 다섯 번째는 황극(皇極), 여섯 번째는 삼덕(三德), 일곱 번째는 계의(稽疑), 여덟 번째는 서징(庶徵), 아홉 번째는 복극(福極)이다. 그 자리와 수는 매우 분명하다.<sup>24)</sup>

주희의 이론에 의하면, ‘낙서’의 각 숫자와 방위는 모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오행’, ‘오사’, ‘팔정’, ‘오기’, ‘황극’, ‘삼덕’, ‘계의’, ‘서징’, ‘복극’의 개념들은 모두 『상서』 「홍범(洪範)」에서 나왔다. ‘오행’이 가리키는 것은 금, 목, 수, 화, 토이다. ‘오사’가 가리키는 것은 모(貌), 언(言), 시(視), 청(聽), 사(思)이다. ‘팔정’이 가리키는 것은 식(食), 화(貨), 사(祀), 사공(司空), 사도(司徒), 사구(司寇), 빈(賓), 사(師)이다. ‘오기’가 가리키는 것은 세(歲), 월(月), 일(日), 성(星), 진(辰)

24) [宋]胡方平, 『易學啓蒙通釋』 卷上, 『四庫全書』 本, “洛書之實, 其一爲五行, 其二爲五事, 其三爲八政, 其四爲五紀, 其五爲皇極, 其六爲三德, 其七爲稽疑, 其八爲庶徵, 其九爲福極. 其位與數尤曉然矣.”

이다. ‘황극’이 가리키는 것은 대중(大中)의 도(道)이다. ‘삼덕’이 가리키는 것은 정직(正直), 강(剛), 유(柔)이다. ‘계의’가리키는 것은 귀갑(龜甲)과 가새풀로 점을 쳐서 의심스러운 일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서징’이 가리키는 것은 재앙과 해로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복극’이 가리키는 것은 “오복을 누리며, 육극을 지나는 것(享用五福, 威用六極)”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복’은 장수와 부 그리고 고상한 도덕적 소양과 천수를 다 누리는 것을 말한다. ‘육극’은 바로 단명하는 것, 질병, 우려, 가난, 악을 범하는 것, 노쇠하는 것이다. ‘향용오복(享用五福)’은 다섯 가지 복을 추구하고 도달하는 것이며, ‘위용육극(威用六極)’은 여섯 가지 해악을 피하는 것이다.

필자는 ‘낙서’를 모방한 용으로서, 윗 글에 등장하는 9가지 기본개념을 『전경』에서 대부분 찾을 수 있는 것에 주의하였다. 예를 들어 「교운」 2장 42절의 「운합주(運合呪)」에는 계속적으로 ‘오행’, ‘오사’, ‘팔정’ 등이 출현한다. 「교운」 1장 54절, 2장 20절, 3장 22절에서는 계속적으로 ‘황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제생」 42절 ‘고견원러왈지(高見遠慮曰智)’에서는 ‘삼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강성상제와 도주께서 공사를 행할 때, 실용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6. 음양도수를 ‘바로 잡는’ 사상적 의의 및 그 현실적 가치

위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우리는 기본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전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강성상제와 그 계승자 도주 조정산께서 공사를 행하고 이로서 천지음양의 도수를 바로 잡는 것에는 근본적인 기원이 있다. 즉 고대 역학의 ‘하도, 낙서’가 말하는 천지의 태극적 형태의 수리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복희씨의 ‘선천팔괘방위’와 주문왕의 ‘후천팔괘방위’에 근거하여 음양을 조절하고, 하늘과 사람에 통달하고, 그 원한을 없애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러한 방법이 단지

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도 있게 분석해보면 고대와는 다른 명확한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전경』에서 말하는 ‘공사’ 개념의 창조 정신을 깨닫게 된다. 강성상제와 도주 조정산께서 ‘묵은 하늘’의 음양 혼란 시대에 공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도수를 바로잡는 공사는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개벽’도 이에 포함된다. 중도, 화평, 공정은 질서가 바로 잡힌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 Ⅲ. 대순진리회 공사의 절차와 의식 그리고 상징적 의미

#### 1. 새로운 삶을 여는 대순진리회의 공사는 명부의 한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공사를 행하는 것이 천지의 질서를 바로잡고 인간사회의 올바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이처럼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행할 것인가? 『전경』의 기록은 공사를 행하는 것이 ‘명부’의 원한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각종 모순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창생을 제도할 수 있고, ‘삼계개벽(三界開闢)’의 역사적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경』의 「공사」 1장 3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25)

여기서 말하는 ‘선천’과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팔괘방위’의 ‘선천’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논문의 2장에서 분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꽤 위의 ‘선천’은 바로 천지우주질서의 원초적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질서는 자연적인 것이며 사람의 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강성상제께서 김형렬에게 말한 ‘선천’은 하나의 역사성을 지닌 개념으로 ‘삼계개벽’ 이전의 ‘목은 하늘’의 시대를 가리킨다.

강성상제의 판단에 따르면, ‘목은 하늘’의 시대에는 원한의 응어리들이 매우 심각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기” 때문으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상극’이다. 원래 ‘상생, 상극’은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기본 법칙으로, ‘상생’과 ‘상극’이 조화되고 통일되는 상태에 도달하여야만 사물이 질서 있고 정상적인 상태로 발전을 이룬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결연하지 못하여 욕망이 넘쳐서 분출하게 되었으므로 상극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 인간과 세상의 사물 간에 ‘상생’이라는 바른 에너지가 생기지 못하고, ‘상극’이라는 단지 부정적 에너지만 존재하게 되면 서로 간에 끊임없이 원한이 발생하고 쌓이게 된다. 이렇게 되자 천지의 정상적인 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종의 재앙과 화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마치 얽혀버린 한 더미의 실과 같아서 이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 같은 국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강성상제께서 공사를 행하는 과정은 명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시

25) 『전경』, p.94.

작한다. 즉, “명부공사의 일부를 착수하셨다”는 말에서 강성상제께서 행한 명부공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곧’이라는 단어가 명부의 원한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려준다. 왜냐하면 ‘곧’이라는 단어는 ‘즉시’, ‘바로’라는 의미이고, 이는 급박하고 긴장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명부의 한을 풀어내는 것이 공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가? 「공사」 1장 5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씀을 하신 뒤부터 상제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sup>26)</sup>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세상의 혼란이 명부의 착란에서 기인한다. 둘째, 단지 명부 공사를 통해서만 세상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다. 셋째, 강성상제께서는 원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일 글을 써서 불태웠다. 윗글에서는 비록 강성상제께서 쓴 글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글자를 써서 태우는 행위는 인간 세상과 명부가 소통하는 일종의 필수적인 공사의 방식임을 확신할 수 있다.

명부에서 시작하여 원한을 해결하는 공사를 행하는 것은 강성상제께서 만든 창조적 업적이다. 겉으로 보서는 매우 신비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물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상 근본에 힘쓰는 행위란 것을 알 수 있다. 명부의 ‘귀(鬼)’는 죽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부의 한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존재한 원한이다. 이러한 원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인간 세상에 존재하여 온 모순이 있고, 만일 누적된 모순을 풀지 못한다면, 후대 사람들은 끊임 없이 충돌하고 투쟁할 것이므로 사회는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없음

26) 같은 책, p.95.

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성상제께서 공사를 행하여 이로써 명부의 원결(冤結)을 해소한다는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근본을 증시한다는 의미이며,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사회를 다스리는 커다란 방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볼 때, 『전경』에 “원의 뿌리부터 해결한다”는 공사의 사유 방식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공사의 사유 방식과 관련하여 『전경』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공사」 3장 4절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라. 머리를 굽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 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sup>27)</sup>

이 글에서는 단주라는 중요한 역사적 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중국 고대 삼황오제의 하나인 ‘요’의 아들이다. 요는 10명의 아들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단주는 적자로 큰아들이고, 원래는 제위의 계승자이나 권력투쟁 중에 중상모략을 당하게 된다. ‘순’이 자신이 황제의 제위에 등극하기 위하여, ‘요’의 앞에서 단주를 헐뜯으며 부자지간을 이간질시켰다고 전해진다. 순은 요를 설득시킬 방법이 없게 되자, 단주를 요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남쪽으로 보내버리고, 단수 유역의 지역에서 제후를 맡게 하였다. 『죽서기년(竹書紀年)』에 “후적이 황

27) 같은 책, p.125.

제의 아들 주를 단수로 유배 보내버렸다(后稷放帝子朱於丹水)”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에서 ‘제자주(帝子朱)’가 가리키는 것은 ‘단주’이고, ‘방(放)’은 ‘유배 보내다’라는 의미로, 단주가 일찍이 유배당하였음을 나타낸다. 이 문장을 통해서 단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존하는 문헌에 근거하면, 단주는 분명 역사상 최초로 제왕의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기록으로, 강성상제께서는 단주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전경』의 설명에 의하면, 단주가 한을 품게 되어 결국에는 여러 악영향이 야기되었다. 순은 창오에서 죽고, 요의 딸인 순의 두 부인은 모두 상강에 빠져 죽었는데, 이는 모두 단주의 한으로 인한 결과이다. 단주와 순에서 시작하여 인류는 깊은 원한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게 되었다. 강성상제께서 도를 널리 알린 시대에 이르러서는 누적된 원한이 이미 천지간에 창궐하였고, 인류가 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단주와 순의 갈등이 만들어낸 원한에 대한 강성상제의 이 같은 평가는, 대순진리회의 교리에 있어 원한을 해결하는 문제가 매우 중시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는 문제의 기원을 되찾아가는 대순진리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원한을 해결하는 것을 공사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대순진리회가 추구하는 이상, 즉 인류에 맺힌 원한을 완전히 해소하고, 영원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다.

## 2.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

『전경』에서 언급한 원한을 해소하는 공사는 대순진리회 공사의 첫 번째 단계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지상천국건설’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과 영역을 통해 강성상제를 중심으로 한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을 아우르는 방법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구



체적인 조치와 방법을 통하여 순서대로 관련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강성상제의 공사는 ‘선천(舊時代)’이 남긴 원한 문제와 ‘후천(未來)’에 계속해서 이어질 원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대순진리회의 공사가 ‘선천’과 ‘후천’을 모두 고려한 까닭은 시공통일론의 입장에 기반 한다. 『전경』의 관점을 참조하면, 선천의 원한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천지도수가 편중되었고, 심지어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므로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으면서 동시에 후천의 음양도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역도(逆度)’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수를 바로 잡기 위한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공사」 2장 19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제께서 十二月에 들어서 여러 공사를 마치시고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에 착수하셨도다. 경석·광찬·내성은 대흥리로 가고 원일은 신 경원의 집으로 형렬과 자현은 동곡으로 떠났도다. 상제께서 남아 있는 문 공신·황 응중·신 경수 들에게 가라사대 「경석은 성(誠) 경(敬) 신(信)이 지극하여 달리 써 볼까 하였더니 스스로 청하는 일이니 할 수 없도다」고 일러 주시고 또 「본래 동학이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 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 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들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十二月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니라. 그 부친이 동학의 증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 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 신명들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王侯將相)의 해원이 되리라」 하시고 종이에 글을 쓰시며 외인의 출입을 금하고 「훗날에 보라. 금전소비가 많아질 것이며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아지리라. 풀어 두어야 후천에 아무 거리낌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맺으셨도다.<sup>28)</sup>

28) 같은 책, p.117.

위의 내용에는 ‘역도’라는 특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는 두 차례 언급된 ‘역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역도’의 근본 의미와 파생된 뜻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대문헌을 살펴보면, 경(經), 사(史), 자(子), 집(集) 등에서 ‘역도’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각각의 단어가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대 뇌사제(雷思齊)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무릇 삭이란 것은 거꾸로 지나는 것이다. 역이 해와 만난 것을 삭이라고 부른다.<sup>29)</sup>

글 속에 ‘삭(朔)’자는 달이 운행하며 나타나는 상태 중 하나이다. 즉 매월 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를 회전하는데 이 때 가려진 검은 부분의 절반이 지구와 마주하게 되면 빛을 등지게 되므로 ‘삭’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삭’은 서로 등지고 역으로 반응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삭’과 ‘역(逆)’은 서로 상통한다. 즉, ‘삭’은 역행이다. 달이 거꾸로 돌면 태양을 등지는 것이므로 ‘삭’으로 부른다. 이상의 고찰에 근거하여 『진경』에서 말하는 ‘역도’는 반대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강성상제께서는 왜 ‘역도를 조정하는 공사’를 행하려고 하였을까? 그 원인은 ‘동학’의 원한이 ‘후천을 역도하러’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학’은 응당 ‘동학교’를 말하며, 이는 조선의 역사에서 농민이 주체가 된 사회조직이다. 1860년을 전후하여 최제우는 ‘동학교’를 창시하였으며 ‘동학교’는 본래 상대적으로 순수한 종교단체였다. 이들의 사상과 주장의 기저에는 반기독교적 민족의식이 있었으며, 조선에 유입된 서방 문화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였기 때문에 ‘동학’이라고 불

29) [宋]雷思齊, 『易圖通變』卷3, 『四庫全書』本, “夫朔, 逆度也. 逆與日會, 故謂之朔.”

렀다. 후에 ‘동학교’는 ‘동학당’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의 구호는 “탐관 오리들을 징벌하고 다스린다(懲治貪官汚吏)”와 “왜구를 배척하고 서양을 배척한다(斥倭斥洋)”였다. 동학군은 조선 말기에 여러 차례 봉기하였으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일제와 당시 조선의 관군들에 의해 진압 당하였으며,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수 만 명에 이른다. 강성상제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잃은 수 만 명의 사람이 죽어서 돌아갈 곳 없는 ‘원신(怨神)’이 되어, 그 원기(怨氣)가 하늘을 가득 채워 어지럽힌다고 생각하여 이를 ‘역도’라 하였다. 만일 이 깊은 원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통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가 안녕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강성상제께서는 당시의 상황과 가능성에 근거하여 원한을 해소하는 임무를 종도인 경석에게 부여하였다. 왜냐하면 경석의 부친이 일찍이 동학의 핵심인사였고, 경석 또한 한 지방의 동학 총대표를 지냈기 때문이다. 이는 경석이 무참히 진압당해 목숨을 잃게 된 원신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는데, 강성상제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을 처리하게 되면 원신과의 소통에 유리함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강성상제께서 “역도의 공사를 정리하였다.”는 말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가 남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이를 다시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통해 보면, 강성상제께서 민생 문제를 매우 중시하였음과 인간의 도에 대해 경외심과 존중을 표현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동학 지도자가 고군분투한 목표가 “왕후장상이 되기를 기원하고 바라는” 욕망을 포함하였더라도 그들은 이미 원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었으므로 정신적 구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행한 ‘공사’는 ‘보세(普世)’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또한 인도주의와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융합과 통합을 이룸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 3. 물화상통(物貨相通)의 공사를 행하다

‘지상천국의 건설’이라는 최종목표에 근거하여, ‘공사’ 문제에 대해

대순진리회에서는 당시의 현실이 가진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착안하였을 뿐 아니라, 미래의 이상적인 생활에 중점을 두었다. 이 때문에 전교의 과정에 있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하여 신도들의 정신적 경지를 높이고, 대순진리회의 사상적 핵심을 깨닫게 하였다. 이에 대해 『전경』 「공사」 2장 23절에서는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상제께서 만국 창생들의 새 생활법으로서 물화상통을 펼치셨도다. 종도들이 상제의 명을 좇아 공신의 집에서 밤중에 서로 번갈아 그 집의 물독 물을 반 바가지씩 퍼내 우물에 쏟아 붓고 다시 우물물을 반 바가지씩 독에 붓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여러 우물과 독의 물을 번갈아 바꾸어 갈아 부엌도다.<sup>30)</sup>

글 속의 ‘만국창생(萬國蒼生)’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주목하게 한다. ‘만국’은 모든 국가를 가리키며, ‘창생’은 일반 백성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을 가리킨다. ‘여민백성(黎民百姓)’을 사용하지 않고 ‘창생’이란 말을 사용한 까닭은 대순진리회의 근본 속에 거시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순진리회의 창시자는 위대한 뜻을 품고 있었고, 우주의 모든 존재를 구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점은 『전경』의 「교법」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교법」 1장 15절에서는, “경석이 벼논에 날아드는 새 떼를 굳이 쫓거늘 말씀하시되 「한 떼의 새가 배를 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어찌 천하 사람의 배를 채워 주기를 뜻하리오」 하셨도다.”라 하였다. 이 반문은 인류와 동물에 대한 강성상제의 자비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또한 ‘만국창생’의 의미를 나타내는 매우 좋은 예이기도 하다.

강성상제께서 말한 ‘신생활법’은 인(仁)과 인류와 동물에 대한 자비심을 강조하며 ‘삼계개벽’의 개혁정신과 창조적 사고를 나타낸다. ‘신’과 ‘구’는 서로 대립된다. ‘목은 하늘’의 사회에는 무수하고 다양한 폐단들이 존재하였고, 온갖 원혼이 축적되어 선천 음양의 도수에 혼란이

30) 『전경』, p.119.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신생활법’이 필요한 것이며, 구시대의 폐단을 획기적으로 제거하여야만 비로소 참된 양의 기운을 밝힐 수 있다. 또한 그래야만 하늘과 땅을 함께 드높이고 생기가 넘치도록 할 수 있으며,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고, 서로 돕고 우애 있는 개명선국(開明仙國)을 만들 수 있다. 「교법」편에서는 ‘신생활법’이 다양한 측면과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폐습을 개선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존중하며,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속이지 않고, 바른 마음으로 덕을 닦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복을 기원하고, 선을 쌓아서 장수를 구하며, 관용을 베풀고, 절약하고, 지위를 탐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겸손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신생활법’의 기준은 강성상제께서 주변의 종도들을 하나하나 일깨우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활동 맥락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연관 지어 보는 것은 ‘신생활법’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그렇다면 ‘신생활법’은 어떻게 실행하는가? ‘신생활법’의 핵심정신은 바로 ‘통달(通達)’인데, 강성상제께서 물화상통의 공사를 행하는 것은 ‘통달’의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 ‘물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 볼 때, ‘물화상통의 공사를 행하는 의식’에는 분명 상징적인 함의가 있다. ‘물화상통 공사’에는 수(水), 수항(水缸), 수정(水井)의 세 가지가 사용된다. 즉 ‘물’로써 ‘물화상통 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물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물은 때로는 뇌우나 강과 호수 혹은 바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 ‘통달’의 개념을 형상화 할 수 있다. 때로 환경적 원인으로 인하여, 한 곳의 물과 다른 구역과 ‘물’이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신도들이 “서로 번갈아 그 집의 물독 물을 반 바가지씩 퍼내 우물에 쏟아 붓고, 다시 우물물을 반 바가지씩 독에 붓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세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천지우주와 인간 세상과의 ‘통달’을 위하여,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신봉하는 수행자는 반드시 적극적이고 주

동적인 태도를 갖추고 실제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둘째, ‘통달’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의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서로 번갈아(輪番)”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중도들이 ‘공사’의 의식 활동에 참여했음을 뜻한다. 셋째, 천지간에 있는 재물을 고갈될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물독에서 퍼 올릴 수 있는 것은 매번 반 바가지의 양 뿐이고, 우물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것도 반 바가지의 양일뿐이다. 이것은 인간사의 평범한 생활은 반드시 가는 물이 길게 흐르는 것처럼 해야만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더 깊이 분석해 보면, ‘물화상통 공사’에서 말하는 물을 퍼내는 의식과 노자 『도덕경』의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정신은 통하는 바가 있다. 『도덕경』 8장에는 아래와 같은 말이 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니, 이러한 고로 도에 가깝다.<sup>31)</sup>

위 글의 뜻을 살펴보면 가장 큰 ‘선’은 곧 물과 같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물의 선함과 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물은 만물을 운택하게 하고 생장을 돕지만, 명예, 이익, 공덕, 크고 작음을 다투지 않는다. ‘물’은 사람들이 천시하는 아래로 흐르는데, 이로 인해 물은 ‘대도(大道)’의 속성에 가장 근접한 것이 된다. 이로 볼 때, 『전경』에서 언급한 ‘물화상통 공사’에서 물을 뜨는 의식은 깊은 ‘대도’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대도’의 개념은 『전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해 「행록」 2장 12절의 “천지대도를 열다”, 「교운」 1장 9절의 “체세대도를 계시하다”, 「교운」 2장 18절의 “해원상생 대도의 진리를 설법하시어 도를 밝혀 주셨도다”, 「교운」 2장 「각도문」의 “유불도의 대도에 정통하시다”, 「포유문」의 “무량한 대도”, 「개벽주」의 “대도를 떠나지

31)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眾人之所惡, 故幾於道.

않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대도’의 정신이 대순진리회 경전의 많은 장과 절을 관통하고 있고, 대순진리회의 교리의 핵심이 되었음을 설명한다. 강성상제와 도주 조정산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사를 행하였고, 공사는 상징성을 갖춘 의식으로 천지가 새로워지는 ‘개벽’을 나타내고 ‘대도’의 매력과 생명력을 암시하였다. 이것이 바로 『전경』이 전해주는 창조적 정신과 에너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32)</sup>

#### IV. 맺음말

종합적으로 볼 때, ‘공사’는 『전경』이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종교문화적 현상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매우 깊은 사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순진리회 ‘공사’개념의 연원은 중국 고대의 경전과 문헌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단순히 중국의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순진리회의 공사는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여 생겨난 종교문화 활동이다. 이러한 종교문화 활동은 일종의 기호로서 상징성을 갖춘 의식을 거행하여 천지와 인간세상 및 명부에 가득한 원한을 해소하려는 시도이며, 천지의 음양도수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이다. 공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신생활법이며, 이로써 ‘대도’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이로 볼 때, 인간의 삶을 인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신이 ‘공사’의 개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전경』에 기재된 ‘공사’의 내용은 너무나 많다. 편폭의 제한으로 본 논문은 단지 그 중의 작은 일부분만을 다루어 해석하였으며, 훗날 다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해서 다루고자 한다.





## 大巡『典经』的“公事”考论

詹石窗\*

四川大学老子研究院·院长

- 一、大巡“公事”的文化关联  
二、大巡公事的创新思路与匡正阴阳度数  
三、大巡公事的步骤、仪式及其象征底蕴  
四、结语

“公事”是韩国大巡真理会『典经』中一个非常重要的概念。该经典文献设有「公事」篇，内容分为三章，占有不少份量。除此之外，在「行录」、「教运」、「教法」、「预示」等篇里，也有许多内容涉及“公事”。因此，弄清“公事”的涵义、历史由来、形式特征，对于理解『典经』的思想宗旨极为关键。鉴于此，笔者在近几年来，特别关注这个问题。一方面，笔者仔细研读了『典经』；另一方面，笔者也查阅了其他相关历史文献，有了一些感想，现将思路整理成文，以方便各位朋友进一步讨论。

### 一、大巡“公事”的文化关联

大巡真理会的“公事”，作为一种特殊的文化现象，自有其来龙去脉。为了便于考察，本文先引述『典经』中的有关资料，而后再作分析。

---

\* 1954年生，哲学博士，现任中国四川大学老子研究院院长、教授。已撰有『道教文化十五讲』、『易学与道教符号揭秘』等书30多部，发表学术论文200多篇。

## (一) 『典经』关于“公事”的一段奇异记载

翻开『典经』之「公事」篇第一章，即刻就可以看到有关“公事”的一段描述：

辛丑年冬，上帝行了大院寺的工夫后，在家中不糊窗纸、不生炉灶火，换上整洁的衣服，茶饭不进地开始了为期九天的天地公事。在这九天里，即使在村场院里晒稻谷，飞鸟儿不敢接近，人们也不敢通过上帝家门前。<sup>1)</sup>

读了这段文字，笔者非常惊奇：在寒冷的冬季连续行公事达九天之久，竟然不糊窗纸，也不生炉火，而且茶饭都不进，这对于常人的生活来说几乎是不可想象的。更令人赞叹的是，在上帝行公事的时段中，整个村落场院，凡是晒谷子的地方，鸟儿都不敢接近，人们也不敢从上帝家门前经过，说明行公事产生的能量是非常大的。

像以上的异事奇迹，在『典经』中比比皆是，每看到这样的段落，笔者都会被吸引，甚至拍案叫绝。然而，到底什么是“公事”？如何理解“大巡公事”的内涵？这是需要认真揣摩的。

## (二) 古代儒家文献的“公事”渊源

查中国古代典籍，可以发现“公事”这个词汇由来已久。中国上古时期的经典著作『诗·大雅·瞻印』云：“妇无公事，休其蚕织。”朱熹对此注释说：“公事，朝廷之事也。”朝廷是古代社会的政治代表，“朝廷之事”在某种意义上可以说代表着社会公家之事；从管理角度来讲，“公事”就是社会政治活动。在中国古代很长时期，政治乃是男人的事，妇女一般不参与政治活动，所以『诗·大雅·瞻印』说“妇无公事”。当然，这并不意味着妇女无所事事，其实她们也有很重要的工作，这就是种桑养蚕织布，即使是王

1)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典经』（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第93页。以下凡引用『典经』皆出此版本。

后也有象征性的“蚕织”。

为什么王后也有象征性“蚕织”呢？这需要追溯一下“藉田”的制度。所谓“藉田”，其实就是“公田”。按照规定，留给天子的公田是千亩，留给诸侯的公田是百亩。公田除了种植水稻、麦子等粮食作物之外，也用于种植桑树，以便养蚕织布。因为此类田地需要借助民夫来耕作，所以称作“藉田”，这里的“藉”是“借力”的意思。古时候，春耕开始的时候，天子要戴上皇冠，系上朱红色的带子，带头扶耒躬耕；诸侯也一样要戴上正式的帽子，系上青色带子，亲自操作犁铧耕作。至于皇后、夫人也有相应的“蚕织”活动。当然，这都是一种象征性宣示，目的在于释放一种信号：农事活动很重要，不要误了农时。象征性宣示之后，天子、诸侯完成任务了，而皇后、夫人也可以休息了，所以说“休其蚕织”。

从以上的情况看，“公事”本有特指意义。天子、诸侯躬耕作为政治活动，被当作“公事”，而皇后、夫人尽管也有象征性的养蚕织布活动，却不列入“公事”范围。

在古代，祭祀典礼是很重要的一项公事。汉代的郑氏笺、唐代的陆德明音义、孔颖达疏的『毛诗注疏』卷十六对『小雅』中的一首诗注释说：

吉罍為饔，是用孝享。『传』：吉，善；罍，絜也；饔，酒食也；享，献也。笺云：谓将祭祀也，禴、祠、烝、嘗于公先王。『传』：春曰祠，夏曰禴，秋曰尝，冬曰烝，公事也。

这段话的开头是『诗经·小雅·天保』的句子。“罍”的发音与“涓”相同，意思是除去污垢；另外，旧时“罍”也读作“圭”，故而“洁罍”又称“洁圭”，指的是祭祀前选择吉日，斋戒沐浴；至于“饔”，有个“食”字旁，自然与饮食有关，『毛诗注疏』直截了当地指出，那指的是“酒食”。根据这样的字义，我们可以明白，“吉罍為饔”是说酒食用品都经过纯净处理，可以放心使用。“是用孝享”表示那些经过纯净处理的酒食用以敬献神明。不难看出，上引『诗经』的句子是讲述宗教祭祀的事情。照汉代经学家郑玄的解释，古代祭祀有季节之分，不同季节有不同礼仪。春天的祭祀称作“祠”，夏天的祭祀称

作“禴”，秋天的祭祀称作“尝”，冬天的祭祀称作“烝”；但不论什么季节，凡祭祀都属于公家的事，因此称作“公事”。

以祭祀为公事，既见载于『诗经』，也在『易』、『书』、『礼』多种古代经典及其注疏文献里有所反映。笔者通过检索，发现“公事”这个概念在『四库全书』先后出现了1600多次，涵盖9000多卷文献资料，其中有相当多涉及宗教祭祀。

查考大巡『典经』，我们可以发现，无论是九天上帝姜甌山，还是道主赵鼎山，都读过『诗经』、『尚书』等中国古代经典，这一点在『典经』中有许多记载。例如「教运」第二章底五十三节谓：“甲午年秋，道主命朴汉庆寻得旧版的『史略』<sup>2)</sup>上下卷和四书三经。朴汉庆便找来了旧版『通鉴』、『小学』、『大学』、『论语』、『孟子』、『诗传』、『书传』、『中庸』、『周易』等书呈予道主。后这些书籍皆藏于道场。”朴汉庆奉命找来的『通鉴』应该是指宋代司马光编撰的『资治通鉴』，此书中“公事”出现了32次；至于其他诸书，也多涉及“公事”，如宋代真德秀撰『大学衍义』言“公事”者7次，明夏良胜撰『中庸衍义』言“公事”者3次，宋代蔡节编『论语集说』言“公事”者3次，汉代赵氏注、宋孙奭音义并疏『孟子注疏』言“公事”1次，宋林之奇撰『尚書全解』言“公事”者1次，唐代李鼎祚撰『周易集解』言“公事”者1次。在这些文献中，“公事”当然并非仅指祭祀，而是有更为丰富的内涵；但毫无疑问，以宗教祭祀为重要内容的“公事”是有案可稽的。『典经』中的“公事”概念应该与上述经典文献有一定关联。

### (三) 道教典籍所见“公事”例说

大巡『典经』的“公事”概念不仅可以追溯到儒家经典文献以及历史文献，而

2) 文中所谓『史略』可能是指『朝鲜史略』，此书又称『东国史略』，收入『四库全书』史部中，『四库全书总目提要』称其为明代时朝鲜人撰，“所纪其国治乱兴废之事，始于檀君，终于高丽恭让王王瑤。自新罗朴氏以前稍略，而高丽王建以后则皆编年纪载，事迹颇具。”此书两次言及“公事”。

且在中国道教典籍中也有蛛丝马迹可寻。这一点，在“玄天上帝”信仰系统的道教文献中就有例证。

“玄天上帝”，简称“玄帝”，系中国道教信仰的北方水神。就源头上看，“玄武”本是二十八星宿的北方七宿总称，也作为方位标志的四神兽之一。早在先秦时期，玄武的名称已经出现。秦汉之际，由于天文星占术的流布与发展，“玄武”的名声越来越大。东汉以来，玄武被制度道教作为镇北之神，在中国湖北省武当山逐渐形成了以“玄武”为信仰主神的道教团体。由于避讳的原因，“玄武”到了宋代改称“真武”，信仰者尊为“真武大帝”。随着道教活动的发展，衍生了许多关于“真武大帝”的修道故事，并且出现了一批相应的经典文献，其中影响较大者有：『玄天上帝启圣录』、『大明玄天上帝瑞应图录』、『玄天上帝启圣灵异录』、『武当福地总真集』、『武当纪胜集』等。在这些文献中，我们也可以找到“公事”概念。例如『玄天上帝启圣录』卷一『凯还清都』谓：

三清是赖，九圣得依。再扶道法之隆，又复邪魔之正。降水火二精于掌握，摄甲庚两将于纪纲。因兹神化，万汇咸荣。功高众圣，难尽褒崇。当容返本还源，理许归根复位。若不徽称，焉可显德。玺书锡降，厥勿谦辞。可特拜镇天玄武大将军，三元都总管，九天游奕使，北极左天罡，三界大都督，神仙鬼神公事，判玄都佑胜府事，依前太玄元帅，判元和迁校府事，册到奉行。<sup>3)</sup>

这是玉皇大帝敕封玄武真人册文中的一段文字。所谓“三清”指元始天尊、灵宝天尊、道德天尊三位道教的最高神；“九圣”主要有两种说法，一是指伏羲、神农、黄帝、尧、舜、大禹、文王、周公、孔子，如晋代葛洪『抱朴子内篇·释滞』云：“九圣共成『易经』，足以弥纶阴阳。”二是指管辖九星的九位真仙，包括天蓬星、天任星、天冲星、天辅星、天英星、天芮星、天柱星、天心星、天禽星，道门以为九星之中各有仙圣掌管，故称九圣。从上下文看，『玄天上帝启圣录』讲的“九圣”应该是指后者。

3) 『道藏』第19册，文物出版社、天津古籍出版社、上海书店1988年影印版，第576页。

整段册文的大致意思是讲：玄武仰仗三清天尊，依靠九星真人。祂再度扶助道法，使之勃兴，并且让妖魔也改邪归正；祂降伏了水精与火精，为自己所掌控，抓捕了甲、庚两位捣乱的神将，使它们遵循宇宙天地运转的纲常条规。由此，正炁高扬，天下万物荣发而兴盛。玄武的功劳比其他诸位神圣都高，难于一一叙说褒奖，应该容许祂回溯源头、复归于原初的本真状态。倘若没有颁示标志性称号，怎么能够彰显其维护天下秩序的功德呢？于是，朕乃发布册封玺书，请你不用再谦虚推辞。现在，郑重宣布册封天令。

这篇册封诏书出现的“神仙鬼神公事”这个用语尤其值得注意。所谓“神仙鬼神公事”，在这里作为名词使用，可以理解和管理神仙鬼神事务的总干事，相当于一个国家部门的最高长官吧。既然称作“公事”，就意味着要秉公办事，引申开来，便有“办理神仙鬼神公事”的意涵，就范围来看，应该也包括调遣各路神仙兵马以祛邪扶正的事务。

笔者继续检索『玄天上帝启圣录』一书，发现“公事”这个概念在其中出现了多次。在该书卷一中，除了上引用的一段之外，在「武当发愿」这一节里有“都判人问善恶公事”，卷七「高圣降凡」一节里有“管掌天下善恶公事”，卷八「梁公冠簪」一节里有“限半月，要见公事”。另外，在『武当福地总真集』、『武当纪胜集』等关于“玄武”信仰的经籍中也可以看到“公事”的种种描述。由此可知，“公事”早已成为道教玄武信仰中一个重要概念。

考大巡真理会的『典经』，可以找到关于“玄武”的记载，例如「教运」第一章第六六节称：“己酉年正月一日巳时，上帝写就了三部『玄武经』，怀揣一部，在道昌岷焚烧一部，另一部置于京石家。”<sup>4)</sup>在这一段记载之后，『典经』附了20多幅符图，其中有7幅标有“玄武”或“玄武经”，这说明姜圣上帝所传播的道法应与中国传统道教的玄武信仰存在着密切关联，所以其所行“公事”的源头也应该追溯到道教的玄武信仰文化。

4) 『典经』第172页。

## 二、大巡公事的创新思路与匡正阴阳度数

笔者将大巡公事与儒、道经典关联起来进行考察，这并不意味着大巡公事是中国古代公事的简单因袭，而只是说其中存在一些联系。

### （一）大巡公事的创新思路

事实上，无论从思想主旨还是从形式来看，姜圣上帝以及道主赵鼎山所行的公事都有自己的创新特点。「公事」篇第一章第二节记载：

次年四月，上帝在金亨烈家中行了三界开辟的公事。当时，上帝对亨烈说道：“莫守成规，应予创新。譬如，即使父母有积累的财产，然子女若欲用，须看父母脸色。久居旧屋之内，唯恐破落倒塌，终日惶惶不安，此等生活令人困苦。因此，我等今加以开辟，吾所行之公事，于古于今未曾有也，既非继承他人，又非运数所定，唯吾所能者也。吾将主宰三界之大权，改定先天之度数，开后天无穷仙运，建设地上乐园。”继而吩咐道：“汝须信我，竭尽全力于公事。”<sup>5)</sup>

这段文字非常要紧，它不仅指出了姜圣上帝行“公事”的范围，而且表明了其所行“公事”的特征、方向、法度。所谓“三界”，按『典经』的说法，是指“天、地、人”三界，其中地界主要指冥府。行天地公事，就是要解决自然、人间、冥府问题。三界公事并非孤立，而是相互联系的。行公事旨在化解各种冤结，实现三界和平。然而，怎样行公事？历史上虽然已有传统，但时代发生变迁，必须根据新的情况调整思路和法度。因此，姜圣上帝告诉门徒亨烈：“莫守成规，应予创新。”这八个字体现了姜圣上帝在行公事问题上的变革精神。怎样变革呢？这就是通过改定“先天度数”来完成。应该特别注意的是，这里所讲的“改定先天度数”，不能理解为天地宇

---

5) 『典经』第94页。

宙从一开始就出现时空度数不准确，需要校改；而是说人类产生之后，由于欲望膨胀，社会矛盾逐步加剧，致使先天度数混乱，因此需要整理、调化。从这个角度看，所谓“开辟”就是革新“旧天”，纠正人类生活偏离的先天度数，恢复天地本初的正常秩序，以便去除病痛厄运，展示“新天”，建立地上仙国乐园。<sup>6)</sup>

## (二) “先天”与“后天”的概念追溯

什么是“先天度数”呢？这首先涉及如何理解“先天”与“后天”的内涵问题。“先天”与“后天”在中国文化典籍中是很重要的概念，尤其在《周易》解释学中，经常可以看到。《周易·乾卦·文言》称：

先天而天弗违，后天而奉天时。天且弗违，而况于人乎？况于鬼神乎？

对此，唐代经学家孔颖达解释说：“‘先天而天弗违’者，若在天时之先行事，天乃在后，不违是天合大人也。‘后天而奉天时’者，若在天时之后行事，能奉顺上天，是大人合天也。‘天且弗违，而况于人乎，况于鬼神乎’者，夫子以天且不违，遂明大人之德，言尊而远者尚不违，况小而近者，可有违乎？”<sup>7)</sup>照这个说法，则“先天”指的是“在天时之先”，也就是“大人”举事行动发生于自然时间的某一个关节点之先，例如关节点是夏天，但“大人”却提早到春天举事行动；两者不相违背，孔颖达认为这是“天”的规律法度与“大人”的思路吻合，这个时候，“大人”是主导者，而“天”是顺应者；反过来看，“后天”指的是在“天时之后”，也就是“大人”举事行动发生于自然时间的某一个关节点之后，例如关节点是春天，但“大人”却在夏天举事行动；此时两者不相违背，孔颖达认为这是“大人”的思路与“天”的规

6) 笔者注意到，《经典》在许多地方使用了“先天”、“后天”概念，其涵义与《周易》讲的“先天”、“后天”是不同的。必须从特定的文化背景入手予以解读才能真正明白。

7) [魏]王弼注、[唐]陆德明音义、孔颖达疏：《周易注疏》卷一，文渊阁《四库全书》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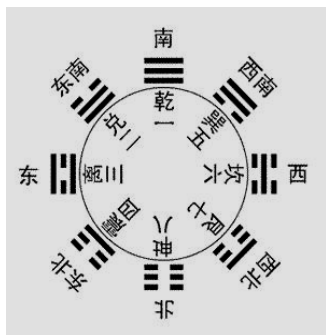
律法度相吻合，这个时候，“天”乃是主导者，而“大人”是顺应者。这段论述的核心精神是“天”有法度，“大人”不论是先于天时举事还是后于天时举事，都能够做到与天体的运行轨迹合拍，一方面表达“大人”具有预见性，另一方面展示“大人”尊尚天道。

### （三）“先天八卦”与“后天八卦”

“先天”与“后天”在『易』学中也是宇宙秩序的两个表达系列。『周易·说卦传』谓：

天地定位，山泽通气，雷风相薄，水火不相射，八卦相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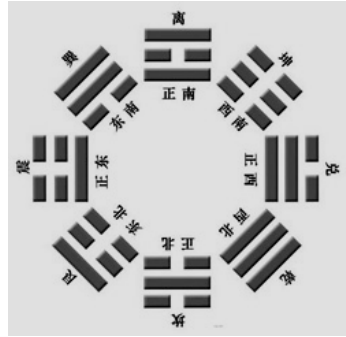
意思是讲，天与地，一上一下，确定了位置；山与泽，一高一低，流通着气息；雷与风，震响流荡，相互应和；水与火，虽然异性，却不相互压制，彼此资助。八卦就是这样相互交错，感通有应。从卦象来看，天地即乾坤，山泽即艮兑，雷风即震巽，水火即坎离，它们各居一方，错落有致。宋代经学家邵雍以为「说卦」讲的是伏羲氏所创的“先天八卦方位”，并且据之推演，昭示了伏羲氏“先天八卦”的自然气象，名曰“伏羲先天八卦图”；其图以乾坤定南北，坎离界东西，兑在东南，巽在西南，震在东北，艮在西北<sup>8)</sup>。根据如此定位，天地宇宙空间可以划分为360度，每卦各45度，依次轮转，而有东西南北的标识，这就是“先天八卦”所表征的天地自然度数；与此同时，“先天八卦”也是时间的符号，因为古代的东西南北方位与春夏秋冬的季节是相互对应的，所以先天八卦也代表时



8) 按，中国先民所创制的八卦方位与西方人发明的地图方位是相反的，西方地图所标识的“东”，在八卦方位中就是“西”，而西方地图标示的“西”，八卦方位则为“东”，其他方位类推。

间的自然展开与季节的自然变迁。

由“先天八卦”之交感而有了“后天八卦”。按照传统说法，“后天八卦”方位是由周文王推演而建立的，故而又称“文王八卦方位”，它不是凭空设想出来的，而是由伏羲八卦的阴阳感通形成的，体现了自然界的变化原理。具体说来，包括了东西南北“四正位”之变与东南、东北、西南、西北“四隅位”之变。



“四正位”<sup>9)</sup>之变：

居于南方的先天乾卦中爻下交于北方的先天坤卦中爻，变成后天之坎卦；居于北方的先天坤卦中爻上交于先天乾卦中爻，变成后天之离卦；居于东方的先天离卦初爻交于西方先天坎卦初爻，变成后天之兑卦；居于西方的先天坎卦初爻交于先天离卦初爻，变成后天之震卦。于是先天之乾坤变成后天之离坎；先天之离坎变成后天之震兑。

“四隅位”<sup>10)</sup>之变：

居于东南方的先天兑卦初爻、二爻交于西北方的先天艮卦初爻、二爻，变成后天之西北乾卦；居于西北方的先天艮卦初爻与上爻交于居于东南方的先天兑卦初爻、上爻，变成后天之巽卦；居于东北方的先天震卦中爻、上爻交于西南方的先天巽卦之中爻、上爻，变成后天之坤卦；居于西南方的先天巽卦初爻、上爻交于东南方的先天震卦，变成后天之艮卦。

通过以上阐述可知：先天八卦主要代表宇宙的空间位置与秩序，并且昭示了本初的自然度数；后天八卦主要象征万物的感通、流行与变化。由此构成的『易经』卦象“先天学”与“后天学”理论对中国文化具有深远而广阔的影响。

从大巡真理会『典经』关于姜圣上帝行公事的记载中，我们也能够找到

9) 所谓“四正位”指的是东西南北。

10) 所谓“四隅位”指的是东南、东北、西南、西北。

『易经』“先天学”与“后天学”卦象度数的蛛丝马迹，例如「公事」篇第二章第十六节记载：

上帝行阴阳度数公事后，对公信道：“附于你正阴正阳度数，善受其气运，正心修炼。”又道：“有文王度数、伊尹度数，然托付此道，极为困难。”<sup>11)</sup>

所谓“正阴正阳”就是伏羲氏的阴阳定位，即本初的先天八卦方位所昭示的阴阳度数。而“善受其气运”就是遵循本初的先天八卦度数来调整自我的生命节拍，使之达到天人合一的自然状态。

#### (四) 先后天卦位与河图、洛书

根据『易』学传统，伏羲氏的先天八卦方位与体现天地自然数理的“河图”在基本精神上是相吻合的；至于“文王度数”就是周文王“后天八卦方位”所昭示的变化度数，它与“洛书”的变通原理也是相吻合的。所以，『典经』在论说公事的阴阳度数时或明或暗地言及河图、洛书问题。例如该书「公事」第一章篇记载：

上帝写下“**河图、洛书**：知人之鉴金亨烈，出将入相金光赞，既然未然崔乃敬，平生不变安乃成，万事不成金松焕”等字后，将其烧掉。天色将暗之际，将**十斗米**送到德赞、亨烈家。<sup>12)</sup>

这段话不仅出现了“河图、洛书”的名称，而且将五个门徒的名字与河图、洛书的方位联通起来，作为木、火、土、金、水“五行”的代号，而末了一句出现的“十斗米”乃是河洛天地自然之数的最高表征。

“河图、洛书”之说，早见于『尚书』等中国先秦古籍。『周易·系辞上』

11) 『典经』第116页。

12) 『典经』第104页。按：此段于2010年版的『典经』断句有不同，这是笔者根据上下文的意思所作的断句。

谓：“河出图，洛出书，圣人则之。”意思是讲，黄河有龙马背图而出，洛水有神龟载书而起，圣人按照河、洛法象，画出了八卦。汉代经学家郑康成引述『春秋纬』云：

河以通乾出天苞，洛以流坤吐地符。河龙图发，洛龟书感。『河图』有九篇，『洛书』有六篇，有以尚贤也。<sup>13)</sup>

这段文字叙说：黄河通达上天，出龙马之图以彰显乾卦之象，其卦象正如花朵含苞待放；洛水流淌大地，出龟甲之书以彰显坤卦符号，其符号如龟壳纹理，排列有序。其后，龙马之图盛行，洛水龟象感通，圣人经过推演，而有了神妙的文化结晶，这就是『河图』与『洛书』。前人记载，『河图』共有九篇，『洛书』共有六篇，这些文字的流传是因为尊尚圣贤的结果。

从郑康成的引述与解释看，河图、洛书在汉代应该是可见的。但此后有相当一段时间，儒家学者并不知晓河图、洛书的真面目；直到北宋时期，道士陈抟得道门隐者秘传，推演河、洛数理，彰显河图、洛书之象，且将其图象刻诸岩壁；其后，儒、道两派人物，授受不绝，河洛图书之学遂广为流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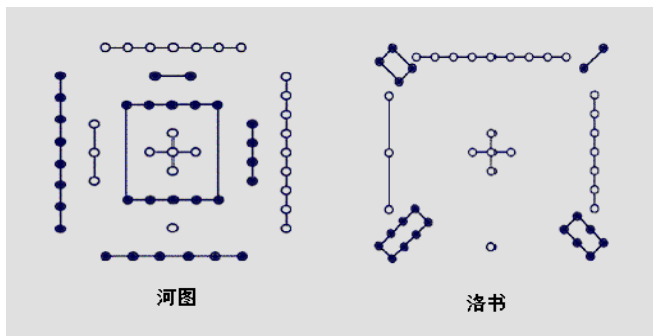
在历史上，有关河图、洛书的问题，向来有不同说法。一般而言，更多的学者主张，河图之象合于『周易·系辞上』所言的“一”至“十”相加之和数“五十五”，即天地自然之数；而洛书之象则合于“一”至“九”相加之和数，即“四十五”之数。

查宋代理学家朱熹所撰『周易本义』卷首有图九幅，其一为河图，其二为洛书，今采纳之，以便对照考察。

对于这两个图，朱熹指出是传自北宋邵雍，由邵雍上溯而达于陈抟，再上溯则至于汉代的孔安国。河图、洛书的数字排列，蕴含什么深刻道理呢？朱熹在『易学启蒙』卷首有精彩解说。

关于河图，朱熹指出：

13) [宋]王应麟编：『周易郑康成注』，『四库全书』本。



河图之位：一与六共宗而居乎北，二与七为朋而居乎南，三与八同道而居乎东，四与九为友而居乎西，五与十相守而居乎中。盖其所以为数者，不过一阴一阳、一奇一偶，以两其五行而已。所谓天者，阳之轻清而位乎上者也；所谓地者，阴之重浊而位乎下者也。阳数奇，故一、三、五、七、九皆属乎天，所谓天数五也。阴数偶，故二、四、六、八、十皆属乎地，所谓地数五也。天数、地数，各以类而相求，所谓五位之相得者然也。

天以一生水，而地以六成之；地以二生火，而天以七成之；天以三生木，而地以八成之；地以四生金，而天以九成之。天以五生土，而地以十成之。此又其所谓各有合焉者也。积五奇而为二十五，积五偶而为三十。合是二者，而为五十有五。此河图之全数，皆夫子之意，而诸儒之说也。<sup>14)</sup>

这两段话，前一段解释“河图”之数的自然法则，后一段解释“河图”之数与“五行”的关系。

将第一段言辞简化，可知其涵义是：“一”与“六”布列于北方，“二”与“七”布列于南方，“三”与“八”布列于东方，“四”与“九”布列于西方，“五”与“十”布列于中央。这十个数，一阴一阳，奇偶相对，是五行数的翻倍。一、三、五、七、九是“天数”，二、四、六、八、十是“地数”，阳者轻清在上，阴者重浊在下。五个方位各有阴阳，由此构成了阴阳相对的态势。

14) [宋]胡方平：『易学启蒙通释』卷上，『四库全书』本。

理解第二段文字的关键在于抓住“生成”二字。照朱熹的看法，“河图”之数乃是“五行”生成的根本。“水”由天一所生，因地六而成；“火”由地二所生，因天七而成，“木”由天三所生，因地八而成；“金”由地四所生，因天九而成；“土”由天五所生，因地十而成。如此，则五行-金木水火土所对应的数都是一阴一阳，两两耦合；一、三、五、七、九，这五个奇数之“和”是二十五；二、四、六、八、十，这五个偶数之“和”是三十。将方阵中的奇数、偶数相加，其和为五十五，这就是“河图”之数的全体。孔夫子所讲的天地之数五十有五，就是河图本数。历代儒生正是根据孔夫子『系辞』的意思予以发挥解说的。

关于“洛书”，朱熹指出：

夫子明云：九前一后，三左七右，四前左，二前右，八后左，六后右。意谓文王当中古忧患之余，谛玩洛书之八象，反复参稽，取乾坤奇偶之九画，而作后天之『周易』，故经卦分上下，而为画者亦自九始。今见于邵子『后天演经图』，谓震兑横而六卦纵者是也。<sup>15)</sup>

文中所言“夫子明”，名郎，系魏代著名的『易』学大师，其遗说常为魏晋以来经学家所征引。朱熹这段话首先引述了夫子明对“洛书”之数的排列位置，继而陈述“文王后天八卦方位”与“洛书”的关系，并且指出整部『周易』数理的“洛书”底蕴。其中，“九前一后，三左七右，四前左，二前右，八后左，六后右”的口诀足以证明夫子明是明了“洛书”图像的，否则不可能有如此确定的描述。对于这个口诀，朱熹在『周易本义』卷首有更为简练的概括：

洛书盖取龟象，故其数：戴九履一，左三右七，二四为肩，六八为足。

意思是讲：“洛书”是取法龟甲之象而创制的。所以它的数字排列就像一个人穿戴的样子，头上戴着“九”，脚上踩着“一”，左边是“三”，右边是“七”，而“二”与“四”就在两肩的位置，“六”与“八”就在两足的位置。将如

15) [宋]程与权：『易学启蒙小传』，『四库全书』本。

此形象的说法，与实际的“洛书”之图像相互对照，我们就能够清楚地看出其排列的阵势与特点。加上中间的数“五”，就形成了一个“九宫”格局。如果将其九宫数字纵横相对，就形成了

4	9	2
3	5	7
8	1	6

如右表格：

从这个表格可以看出，洛书的数字排列，无论是纵横，还是偏正，其数相加之和都是十五。

有趣的是，我们从大巡『典经』里也可以发现这种数字排列，例如「公事」篇第三章第二十八节说：

上帝于是令四人各守药房一角而坐，自己站在屋中央，口中念诵了一遍“二七六、九五—、四三八”后，又命三人将纸裁成纸钱大小塞入砚盒，再命剩下的一人抽出一纸条，并口喊二十八将和二十四将中排列第一神明之“邓禹！”，并将取出的纸再传于他人。<sup>16)</sup>

文中的“二七六、九五—、四三八”顺序是从右到左读出的，将之与此前所列的河图之像相对照，可以确定姜圣上帝念诵的数字即“洛书”的九宫数，他让柳赞明取刀，金亨烈取扇，金自贤取墨，韩公淑取笔，各守于药房一角，自己站立在中央，这分明就是按照“洛书”法象来布局的。

### (五) 河图、洛书的体用虚实与太极图

“河图”与“洛书”，作为天地自然度数的符号，寄托着先民“体用”与“虚实”的认知思路。如果说，“河图”展示了天地自然度数的“体”，那么“洛书”则侧重于天地自然度数的“用”，这种“体用”关系又表现为“虚实”之状。朱熹在『易学启蒙』里概括指出：

16) 『典经』第136页。

河图者虚其中，则洛书者总其实也。<sup>17)</sup>

意思是讲，“河图”的数字排列，中间虽然有“五”与“十”镇守，却虚而不显；而“洛书”的数由“一”到“九”的实际意义都能够得到落实。

“河图”为什么虚置“五”与“十”在中间呢？而其他各数的符号意义又何在呢？朱熹『易学启蒙』接着说：

河图之虚五与十者，太极也。奇数二十，偶数二十者，两仪也。以一、二、三、四为天，六、七、八、九者，四象也。析四方之合，以为乾、坤、离、坎；补四隅之空，以为兑、震、巽、艮者，八卦也。<sup>18)</sup>

照朱熹的看法，河图之所以虚其中数“五”与“十”，是因为居中者乃是“太极”，代表中和之道，虚而不用，就是对“太极”的崇尚；而除去“五”与“十”，剩下了四十，其中奇数为“二十”，偶数为“二十”，代表了阴阳两仪。由于“一、二、三、四”代表四方之天，对应的“六七八九”就是『周易』所讲的“四象”，即太阴、太阳、少阴、少阳。其中，“六”为太阴，又称老阴；“九”为太阳，又称老阳；“七”为少阳，“八”为少阴。再说“析”字，是分离的意思。“析四方之合”就是将“河图”的东西南北四方之数分离。具体来说就是：分离南方的“二、七”之数，以“七”居于南方，代表乾卦；以“二”补于东南隅之空，代表兑卦。分离东方的“三、八”之数，以“八”居于东方，代表离卦；以“三”补于东北隅之空，代表震卦。分离西方的“四、九”之数，以“九”居于西方，代表坎卦；以“四”补于西南隅之空，代表巽卦。分离北方的“一、六”之数，以“六”居于北方，代表坤卦；以“一”补西北隅之空，代表艮卦。由此看来，伏羲氏的“先天八卦方位”背后就是“河图”之数；换一句话来讲，“先天八卦方位”可以看作“河图”之数的一种转换，彼此存在着十分密切的关系。

17) [宋]胡方平：『易学启蒙通释』卷上，『四库全书』本。

18) [宋]胡方平：『易学启蒙通释』卷上，『四库全书』本。



“河图”与“先天八卦方位”的根本连接点是“五”与“十”这两个中数，它们代表着“太极”，这是天地度数的主轴所在。对于其中的奥妙，姜圣上帝是心领神会的，所以『典经』不止一次地涉及“太极”，例如「公事」篇第三章第十二节记载：

公事结束后，上帝在洋纸上画下无数太极图案，并写下字符，又令德兼折来东桃枝。还命德兼细数太极图数，每数到第十便口含东桃枝，最终数得四十九。上帝道：“善哉！一旦数错将出大事。”说罢手持东桃枝，放声高喊几声后，在药房将洋纸烧掉。<sup>19)</sup>

这段故事的神奇处在于：姜圣上帝行公事后画的“太极”数量是“无数”，而门徒德兼认真数了之后，最终数字则是确定的“四十九”，此数合于『周易』“大衍”之用数。『周易·系辞上』谓“大衍之数五十，其用四十有九”，姜圣上帝画了四十九个太极图，其用意就在于暗示：要匡正天地度数，应明先天自然之体，然后才能效法后天之用。

由先天之体，进展到后天之用，也就是在领悟“河图”中虚、“太极”为本的基础上，开发“洛书”九个数字的切实效能。关于这个问题，朱熹『易学启蒙』也有一段精辟论述：

洛书之实，其一为五行，其二为五事，其三为八政，其四为五纪，其五为皇极，其六为三德，其七为稽疑，其八为庶征，其九为福极。其位与数尤晓然矣。<sup>20)</sup>

照朱熹的说法，“洛书”每一个数字与方位都是切实可行的。所谓“五行”、“五事”、“八政”、“五纪”、“皇极”、“三德”、“稽疑”、“庶征”、“福极”这些术语均出于『尚书·洪范』。“五行”指的是金、木、水、火、土；“五事”指的是貌、言、视、听、思；“八政”指的是食、货、祀、司空、司

19) 『典经』第128页。

20) [宋]胡方平：『易学启蒙通释』卷上，『四库全书』本。

徒、司寇、宾、师；“五纪”指的是岁、月、日、星、辰；“皇极”指的是大中之道；“三德”指的是正直、刚、柔；“稽疑”指的是以卜筮决断可疑的事；“庶征”指的是去除咎害；“福极”指的是“享用五福，威用六极”，具体而言，“五福”就是寿、富和高尚德操、尽其天年；“六极”就是短折、疾病、忧虑、贫穷、作恶、积弱。“享用五福”就是追求并且达到五种福报；“威用六极”就是避免六个方面的伤害。

笔者注意到，作为效法“洛书”之用的上述九个方面的基本概念在『典经』里几乎都可以找到，例如「教运」篇第二章的「运合咒」先后出现了“五行”、“五事”、“八政”等；再如「教运」篇第一章第五十四节、第二章第二十节、第三章第二十二节先后使用了“皇极”术语。「济生」篇第四十三节「高见远虑曰智」一文使用了“三德”术语，等等。足见姜圣上帝与道主所行公事是很注重实用的。

## (六) 匡正阴阳度数的思想意义与现实价值

考察至此，我们可以得出初步结论：『典经』记载的姜圣上帝以及继承者道主赵鼎山行公事以匡正天地阴阳度数有一个基本理路，这就是遵循古『易』学“河图、洛书”的天地本初象数法则，根据伏羲氏的“先天八卦方位”与周文王的“后天八卦方位”来调理阴阳，通达天人，化解冤结。初看起来，这似乎只是因循古人传统，但若深入分析，就会感受到其鲜明的变革与创新精神。因为姜圣上帝与道主赵鼎山行公事乃是发生在“旧天”阴阳混乱的时代里，所以匡正度数的公事不仅有正本清源的作用，而且意味着新时代的“开辟”，标志着中道、和平、公正、有秩序社会的开始，对于引导新生活具有重大的现实意义。

### 三、大巡公事的步骤、仪式及其象征底蕴

#### (一) 开辟新生活的大巡公事从化解冥府冤结入手

既然行公事对于维护天地秩序、引导人间社会的正常生活如此重要，那么应该从哪里着手进行呢？『典经』的记载显示：从化解“冥府”冤结入手，而后逐步调理各种矛盾。惟有如此，才能“济度世间苍生”，完成“三界开辟”的历史使命。

『典经』之「公事」篇第一章第三节说：

上帝对金亨烈道：“在先天，人与世间万物皆为相克之理所支配，世间怨恨日积月累，错综复杂地充斥于三界之中。天地失其常道，各种灾祸丛生，世间暗无天日。因此，吾欲整理天地度数，调化神明，以解万古怨恨，以相生之道建后天仙境，济度世间苍生。不论大小事应由神道解冤，若能事先稳固度数并加以调化，人事便以神道为范实现自我达成，这便是三界公事也。”说完，随即行了冥府公事的一部分。<sup>21)</sup>

这里所讲的“先天”与『周易』关于“先天八卦方位”的“先天”涵义是不同的。正如本文第二部分所阐述的，卦位上的“先天”乃是描述天地宇宙秩序的本初存在状况，这种秩序是自然而然、非人力所能左右的；而姜圣上帝对金亨烈讲的“先天”是一个历史概念，指的是“三界开辟”以前的旧时代。

按照姜圣上帝的判断，在旧时代里，症结十分严重，其深层原因是“人与世间万物皆为相克之理所支配”，这句话最为重要的字样是“相克”。本来，“相生、相克”乃是宇宙事物存在与发展的基本法则，只有“相生”与“相克”达到了协调统一，事物的存在与发展才能有序化、正常化。然而，由于人心不古，欲望横流，人与世间事物没有“相生”的正面力量，只有“相

---

21) 『典经』第94页。

克”的负面力量在左右制约着一切，于是彼此之间形成怨恨情绪，并且不断积累，以至于天地常道也不再能够发挥效用，各种灾祸此起彼伏，问题如一堆乱麻，没有头绪。该如何化解这种局面呢？姜圣上帝的公事步骤是从解决冥府问题开始。就“随即行了冥府公事的一部分”这句话来看，我们虽然不知道姜圣上帝行冥府公事的具体情况，但“随即”一词已经表明，化解冥府冤结是头等重要的事，因为“随即”的字义就是“立刻”、“马上”的意思，表示了一种迫切性和紧要性。

为什么行公事必须从化解冥府冤结入手呢？『典经』的「公事」篇第一章第五节回答了这个问题：

上帝道：“因冥府发生错乱，世间随之混乱不堪。故冥府公事完成，则世间万事皆可得解。”此后，上帝每日都在纸上写字，写完随即将其烧掉。<sup>22)</sup>

这段话阐述了三层意思：第一，世间的混乱不堪导因于冥府的错乱；第二，只有通过冥府的公事，世间的冤结才能化解；第三，姜圣上帝为了化解冤结，每日写字烧纸。从其叙说中，我们虽然无法了解姜圣上帝所写的内容，但可以肯定的是写字烧化是进行人世与冥府沟通的一种必不可少的公事方式。

由冥府入手，行解冤公事，这是姜圣上帝的一大创造。表面看起来，这似乎显得很神秘，但如果从事物相互联系的立场看，就会明白，这实际上是从根本上下功夫。因为冥府的“鬼”代表的是逝去的人，冥府的冤结就是人类以往存在的冤结，这种冤结的存在意味着历史上人间所存在的矛盾，如果不能化解先前的矛盾，后人就会继续冲突、斗争，社会就不可能和谐。从这个角度看，姜圣上帝行公事以化解冥府冤结，就是解决历史遗留问题。这表现了抓住根本、从源头上进行社会治理的大方向。

在『典经』里，这种“抓住源头以解冤”的公事思路并非偶然，更不是一闪而过，而是有许多表现的。关于这一点，在「公事」篇第三章第四节的记录

22) 『典经』第95页。

提供了另一条重要佐证：

七月某日，上帝道：“以此公事，消解自古以来累积之冤，除去一切因冤而生之不祥，实现永远和平。此如同牵首而身动，人类有纪录之初就积有冤，冤史初章之尧之子丹朱之冤若得解除，之后数千年间所积冤结便可得解。尧以丹朱不肖，嫁二女于舜，并托付天下。丹朱因此怀冤，使舜死于苍梧，使二女溺沉于潇湘江。从此冤之根深结于世间，代代相续，冤种遍撒，时至今日积冤充斥天地间，导致人类行将毁灭。因此，若救人类于此劫灾，不得不行解冤公事。”<sup>23)</sup>

这段话涉及一个重要的历史人物丹朱，他是中国古代三皇五帝之一的“尧”的儿子。相传帝尧有十个儿子，丹朱是嫡系长子，本来是帝位的继承人，却在权力斗争中遭受诋毁。据说“舜”这个人为了登上帝位，曾经在“尧”面前毁谤丹朱，挑拨其父子关系。舜还设法说服尧，把丹朱派到离帝尧较远的南边丹水流域做诸侯。『竹书纪年』称，“后稷放帝子朱于丹水”。文中所谓“帝子朱”指的就是“丹朱”，而“放”乃是“流放”的意思，表示丹朱曾经遭受了流放的处罚。照此而论，“丹朱”是蒙冤受屈的。

就现存的文献来看，“丹朱”应该是历史上第一桩帝王之子蒙冤的记录，所以姜圣上帝特别关注。依『典经』的描述，丹朱怀冤最终产生了负面的效应，舜之所以死于苍梧，以及尧的两个女儿舜的两个妻子都溺于湘江，都是丹朱冤屈报复的结果。从丹朱与舜开始，人类就有很顽固的冤结，一代一代地流传下去，直到姜圣上帝布道的时期，积累下来的冤结已经充斥于天地之间，如此发展下去，人类将遭受毁灭的厄运。

姜圣上帝对丹朱与舜的矛盾所形成的冤结如此评述，这进一步表达了大巡教理高度重视解冤问题，反映了追根溯源的基本思路。从理论上讲，以解冤作为行公事的开端，这是大巡真理会设想的全面化解人类社会冤结、实现永远和平的必由之路。

---

23) 『典经』第125页。

## (二) 调整“逆度”之公事

当然，在『典经』里，行解冤之公事，这只是大巡公事的第一步。为了实现地上天国的宏伟目标，以姜圣上帝为代表的大巡之教有一个覆盖多方面、多领域的行公事方案，并且通过具体措施、途径，有步骤地推展开来。概括起来，既有针对“先天”(旧时代)遗留的冤结问题，又有针对“后天”(未来)可能延续的冤结问题。大巡公事之所以把“先天”与“后天”贯通起来考虑，是基于时空统一论的立场。照『典经』的描述，先天的冤结没有化解，造成了天地度数偏离，甚至混乱，所以在调整先天度数的同时，也需要调整后天的阴阳度数。

怎样调整呢？很重要的一个方面就是解决“逆度”问题。『典经』之「公事」篇第二章记载：

进入十二月，上帝结束各类公事后，着手进行调整逆度之公事。京石、光赞、乃成等人赴大兴里，元一赴辛京元家中，亨烈、自贤前去了铜谷。留下文公信、黄应钟、申京洙，上帝说道：“京石平素极尽诚、敬、信，原想委以重任，但这一次既自请，只好如此了。”又道：“东学主张辅国安民，强调后天之事，实乃心中企盼成为王侯将相。如今非但未能如愿，由此送命者达数万人之多。这一怨直达苍天。若将这些怨神置之不理，则逆度于后天，致使政事日趋艰难。吾念于此，正欲确定众神灵解怨之头目，京石恰在此时言及十二帝国，是为自请也。京石之父曾为东学骨干，后被俘而死。京石本人又曾担任东学的一个地方总代。从今往后，东学神灵全部托付于京石；如此，未成王侯将相之冤可解矣。”说罢，在纸上写下字符，并严禁外人出入，说道：“且看后日，所耗银两将越来越多，人数较甲午年也有所增加。唯当解之，方可使后天毫无忌讳。”<sup>24)</sup>

这段记载有一个特别的概念“逆度”，它先后出现了两次，整个情节是围绕这个概念展开的，所以有必要对其词源本始意义以及衍生意义略作考析。

24) 『典经』第117页。

查中国古代文献，我们可以看到“逆度”这个词汇多见于经、史、子、集中，其意涵各有不同。宋代雷思齐说：

夫朔，逆度也。逆与日会，故谓之朔。<sup>25)</sup>

文中的“朔”指的是月亮运行表象中的一种状态，即每月初一的日子，这个时候，月亮绕行在太阳和地球之间，其黑暗的半球恰好对着地球，因为是背光，所以称作“朔”，也就是相背逆反的意思，从这个角度来看，“朔”与“逆”是相通的。“朔”就是逆行。月亮逆行，而与太阳背对，所以称作“朔”。根据以上查证，可知『典经』讲的“逆度”具有反向行进的意涵。

姜圣上帝为什么要行“调整逆度之公事”呢？原因是“东学”之怨恨“逆度于后天”。所谓“东学”当是指“东学教”，这是朝鲜历史上一个以农民为主体的社会组织。在1860年左右，崔济愚创立了“东学教”，这本是一个相对纯粹的宗教团体，其思想主张含有抵制基督教的民族意识，因为是为了对抗传入朝鲜的，所以称作“东学”。后来，“东学教”发展为“东学党”，其口号是“惩治贪官污吏”和“斥倭斥洋”，多次举行起义，但由于种种原因被日寇和当时的朝鲜官军镇压了，为此送命的人达到数万之多。在姜圣上帝看来，数万人被镇压丧命，他们成为“怨神”，没有归宿，其怨气冲天乱行，这就是“逆度”。如果没有化解，就会影响政事，致使社会生活不得安宁。因此，姜圣上帝根据当时的情况与可能，将解怨的任务交付给了门徒京石，这是因为京石的父亲曾经是东学党的骨干，而京石本人又曾经是东学的一个地方总代，与被镇压丧命的怨神存在着密切关系，任用京石来处理这件事有助于沟通。

姜圣上帝“进行调整逆度之公事”，从社会角度来看，体现的是对历史遗留问题的关切态度，而从大巡的宗教理念来看，则展示了姜圣上帝对民生问题的重视与对人道的敬重，尽管东学领导人的奋斗目标是“企盼成为王侯将相”，带有个人意图，但他们已经怀着怨气屈死了，也需要精神救

25) [宋]雷思齐：『易图通变』卷三，『四库全书』本。

度。为此而开展的“公事”无疑具有一种“普世”意义，体现了人道主义与宗教终极关怀的思想融通。

### (三) 行物货相通之公事

基于“地上天国建设”的最终目标，大巡之教在“公事”问题上既着眼于当下现实问题的处理，又相当关注人类未来的美好生活。因此，在传教布道过程中，往往通过象征性的仪式来引导信徒们提升精神境界，领悟大巡的思想宗旨。关于此，『典经』的「公事」篇第二章第二十三节的记载提供了有力的佐证：

上帝以万国苍生之新生活之法，行物货相通之公事。众从徒依上帝之命，半夜到公信家，轮番从水缸中舀出半瓢水来倒入井里，又从井里汲出半瓢水倒入缸中。又令其他人在其他的水缸与水井间互舀互倒。<sup>26)</sup>

文中的“万国苍生”语词尤其令人瞩目。“万国”泛指所有国家，而“苍生”不仅指黎民百姓，而且包括一切生灵。之所以用“苍生”，而不用“黎民百姓”，是因为大巡真理会从一开始就具备宏观视野，其创始者胸怀开阔，希望宇宙间一切生灵都能够得到救度。这一点，我们从『典经』的「教法」篇的一个细节可以看出来。该篇第一章第十五节记载：京石驱赶飞进稻田的鸟群，上帝见状说道：“鸟雀充饥尚不容许，又如何填饱天下人的饥肠？”这一番反问，表明了姜圣上帝仁及动物的慈悲心肠，为“万国苍生”的说法提供了很好的注脚。

与仁及动物的慈悲心肠相照应，“新生活法”可谓昭示了姜圣上帝“三界开辟”的改革精神与创造思路。所谓“新”是与“旧”相互对立的。“新生活法”之所以需要，是因为旧时的社会存在种种弊端，人间怨恨之气积压，先天阴阳度数发生错乱，惟有革除旧时弊端，方能焕发真阳之气，创造出天

26) 『典经』第119页。



地同尊、朝气蓬勃、和平安宁、互助友爱的开明仙国。从『典经』的「教法」篇中，我们可以看到“新生活法”在各个层面、各个领域的启示，诸如移风易俗、立贱为贵、悔过自新、诚实不欺、正心修德、净心祈福、作善求生、宽容能忍、惜福节俭、不恋位阶、孝敬父母、谦恭待人等等，这些“新生活法”的规矩通过姜圣上帝对身边从徒们的循循善诱活动而显示出来，仔细揣摩其活动情节，有助于对“新生活法”的认识。

如何实施“新生活法”呢？其核心精神是“通达”。正是基于“通达”的考虑，姜圣上帝“行物货相通之公事”。从“舀水”的过程看，“行物货相通之公事”显然具有仪式象征的涵义。这件“公事”采用的材料有三，即水、水缸、水井。之所以选用“水”来“行物货相通之公事”，是因为“水”是人们生活中必不可少的物质，它或者表现为雨露，或者表现为江河湖海，通过“水”的流动可以很好地体现“通达”的理念。然而，由于环境条件的原因，不同区域的“水”不一定能够交融在一起。众从徒“轮番从水缸中舀出半瓢水来倒入井里，又从井里汲出半瓢水倒入缸中”有三点启示：第一，为了天地宇宙与人间的“通达”，信奉大巡教法的修行者应该有积极主动的态度和实际行动；第二，实现“通达”的效果需要社会成员相互配合协作，因为“轮番”意味着在场的所有从徒都参与了这件“公事”仪式活动；第三，对于天地间的财物不可以穷竭使用，因为从水缸中舀出来的每次仅有半瓢，而从水井里舀出来的也一样仅有半瓢，这暗示人们凡事应该细水长流，才能长久。

从深层次来看，“行物货相通之公事”的舀水仪式与老子『道德经』“上善若水”的精神也是相通的。『道德经』第八章说：

上善若水。  
水善利万物而不争。  
处众人之所恶，  
故几于道。

意思是讲：最大的“善”就像水一样，“水”的善德是什么呢？就是滋润万

物，扶持万物生长，而不去争名、争利、争功、争大。“水”总是处在众人所厌恶的卑下地方，这就是它最接近“大道”的习性了。『典经』记载的上帝“行物货相通之公事”的舀水仪式，无疑蕴藏着深刻的“大道”精神。

检索『典经』，我们可以看到“大道”概念散见于各篇中，如「行录」第二章第十二节的“开启天地大道”；「教运」篇第一章“开示了济世大道”；「教运」篇第二章“解冤相生大道之真理，明其大道”；「教运」篇第二章之「觉道文」所谓“仙佛儒大道正通”；「布喻文」“无量之大道”；「教运」篇第二章之「开辟咒」“不离大道”等等。这些行文说明：“大道”的精神贯穿于大巡经典的诸多章节，成为其教理的基本内核。姜圣上帝与道主赵鼎山通过各种方式行公事，以颇具符号象征意味的仪式，表达了天地日新的“开辟”思想，暗示了“大道”的魅力和生生不息，这正是『典经』传递着的创新精神与力量！<sup>27)</sup>

#### 四、结语

综上所述，可知“公事”是『典经』记载的非常重要的宗教文化现象，其中蕴含着深刻的思想内涵。从渊源上看，大巡的“公事”可以在中国古代经典文献里找到一些相互关联的线索，但绝非简单因袭。从总体上看，大巡公事是因应社会变革需要而形成的宗教文化活动，这种宗教文化活动通过一系列具有符号象征的仪式，力图化解天地、人间、冥府所积压的冤结，匡正天地阴阳度数，其实践意义是昭示新生活法，彰显“大道”指导人生、建设地上天国的精神。

27) 『典经』所记载的“公事”内容相当多。限于篇幅，本文仅对其中一小部分做出解释，待日后再续写相关内容。

## 【参考文献】

- 大巡宗教文化研究所编,『典经』,韩国:大巡真理会出版部,2010年版。
- 『玄天上帝启圣录』,『道藏』,第19册,文物出版社、天津古籍出版社、上海书店,1988年影印版。
- [宋]雷思齐,『易图通变』,『四库全书』本。
- [宋]胡方平,『易学启蒙通释』,『四库全书』本。
- 詹石窗,『道教文化十五讲』,北京:北京大学出版社,2012年版。
- 黄寿祺、张善文,『周易译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4年版。

▪국문 요약▪

## 대순 『전경』의 ‘공사(公事)’개념에 대한 고찰

관스창(詹石窗)

중국사천대학노자연구원

‘공사(公事)’는 『전경』이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종교 문화적 현상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매우 깊은 사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대순진리회 공사개념의 연원은 중국 고대의 경전과 문헌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은 결코 단순히 중국의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니다. 강성상제와 도주 조정산께서는 ‘묵은 하늘’의 음양 혼란 시대에 공사를 행하였기 때문에, 도수를 바로잡는 공사는 근본부터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개벽’도 이에 포함된다. 중도, 화평, 공정은 질서가 바로 잡힌 사회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지닌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순진리회의 공사는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여 생겨난 종교문화 활동이다. 이러한 종교문화 활동은 일종의 기호로서, 상징성을 갖춘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공사는 명부의 환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근본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며,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사회를 다스리는 커다란 방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역도(逆度)’를 조정하는 공사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면, 역사가 남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이는 민생 문제를 매우 중시하였음과 인간의 도에 대해 경외심과 존중을 표현하

고 있음이 나타내며, 결국 ‘보세(普世)’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공사를 실천하는 방법은 ‘신생활법’이며, 이는 인(仁)과 인류와 동물에 대한 자비심을 강조하며 ‘삼계개벽’의 개혁정신과 창조적 사고를 나타낸다. 이로써 ‘통달(通達)’과 ‘대도(大道)’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이로 볼 때, 인간의 삶을 인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상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신이 공사의 개념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대순진리회, 전경, 공사, 선후천과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7월 24일~2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7월 27일